

삼국시대(B.C. 57 ~ A.D. 935) 연호와 역일 기록 분석
ANALYSIS OF THE RECORDS ON REIGN STYLE AND CALENDRIAL DATA OF
THREE KINGDOMS PERIOD (B.C. 57 - A.D. 935) IN KOREA

이기원¹, 안영숙², 정용주³
¹대구가톨릭대학교, ²한국천문연구원, ³경북대학교

KI-WON LEE¹, YOUNG SOOK AHN², AND YONG-JU JEONG³

¹Daegu Catholic University, Gyeongsan 38430, Korea
²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Daejeon 34055, Korea
³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41566, Korea
E-mail: leekw@cu.ac.kr

(Received November 28, 2020; Revised December 19, 2020; Accepted December 23, 2020)

ABSTRACT

We analyzed the records on the reign style and the calendrical data presented in the *Samguksagi*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and the epigraph of the Three Kingdoms (Silla, Goguryeo, and Baekje) period in Korea (B.C. 57 - A.D. 935) to verify the chronological tables of the period that are currently in use. For the epigraph of the Three Kingdoms of Korea, we utilized the database provided by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By analyzing the records on the reign style, first, we found that the *Yeonpyo* (Chronological Table) of the *Samguksagi* is tabularized using the reign style of the Caowei for the period of Three Kingdoms of China (Caowei, Shuhan, and Sunwu) (A.D. 220 - 280). Second, we found that the reign style of the Silla was promulgated during the reign period of a king, which was usually promulgated when a king acceded in China. Third, we found that the reign styles presented in historical materials showed agreement with those of the *Yeonpyo* except for two cases in the Goguryeo. Concerning the records on the calendrical data, first, we confirmed that accession years of kings Michu, Beobheung, Seondeok, Minae, Gyeongmun, and Seongdeok. On the other hand, we found probable errors in the record of accession years for the kings Munja, Wideok, Aejang, and Heonan. Next, we found that the records of the length of a lunar month, leap month, and cyclic day showed agreement with the current chronological table except for several cases. In particular, cyclic days in the solar eclipse account had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discrepancies. We believe that these errors might have been caused by the inaccurate identification of a year in the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while determining the year by referring to Chinese historical documents. Finally, we found that the starting point was included while counting a year, at least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similar to the current method of counting age in Korea. However, we point out that the starting point should be excluded when the term "after" is used in the expression. We believe that this study is very useful to verify the current chronological table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in Korea.

Key words: historical astronomy, Three Kingdoms period; reign-style; calendrical data; Samguksagi; epigraphy

1. 서론

우리나라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조선시대 말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태음태양력(이하 음력¹)을 사용하였

다(Lee, 1985). 반면 오늘날에는 태양력(이하 양력²)인

¹ 이 논문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날짜는 음력을 의미한다.

² 이 논문에서 양력은 율리우스력(Julian Calendar)을 의미한다.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되 음력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Park et al., 2017). 따라서 과거 역법의 날짜를 현대 역법 날짜로 변환하는 자료(이하 연력표)는 국가의 중요한 기초 자료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Yang et al., 2008), 과거 친문현상을 연구하는 고전문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기간에 대한 한국 연력표는 Han(2002, 이후 HAN02)과 Ahn et al. (2009a³; 2009b; 2009c)의 연구가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Lee et al. (2012)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관련 사료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시기인 조선시대 연력표에는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고려시대 연력표에도 1차 사료로 평가받는 금석문의 역일 기록과 차이를 보이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ang, 2012; Lee et al., 2016).

이 연구에서는 삼국시대 역사서인 『삼국사기』와 당대의 금석문에 나타난 연호와 역 관련 기록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삼국시대 연력표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정 왕조의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역법 또한 그 왕조의 것을 사용했을 개연성이 크며(Park, 1978), 따라서 연호 사용에 대한 연구는 역법 계산을 통해 산출되는 역일 연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삼국시대 연력표에 대한 검증은 Kim(2007; 2012; 2013)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그는 『삼국사기』 「본기(本紀)」와 당대 금석문의 역일 기록을 당시 중국 왕조의 자료와 비교하고, 이를 통해 삼국의 역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들에서는 연호 기록은 제외되었고, 또한 일부 시대의 금석문 자료만이 활용되었다. 또한 고구려의 경우 5세기 무렵으로 기간을 한정하였다(Kim, 2012).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삼국사기』, 삼국시대 금석문 등 이 연구에 활용된 사료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사료에 나타난 연호와 역 관련 기록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 5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2. 사료

2.1. 삼국시대 역사서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학자인 김부식(金富軾, 1075 ~ 1151) 등이 인종 23년(1145)에 편찬한 역사서로 통일 신라를 포함한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의 역사를 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 중의 하나이다. 김부식 등은 『삼국사기』를 편찬함에 있어 『위서(魏書)』, 『통전(通典)』, 『책부원구(冊府元龜)』 등의 중국 문헌뿐만 아니라 『구삼국사(舊三國史)』, 『신라고기

(新羅古記)』, <김유신비문> 등 현존하지 않는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CRC, 2008). 이 역사서는 기전체 형식으로 「본기(本紀)」, 「연표(年表)」, 「잡지(雜志)」, 「열전(列傳)」으로 구성되어 있다⁴.

「본기」는 「신라본기」, 「고구려본기」, 「백제본기」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기」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는 진흥왕 6년(545)에 대아찬(大阿飡) 거칠부(居柒夫) 등에게 역사서를 수찬하도록 하였고, 고구려에서는 영양왕 11년(600)에 태학박사(太學博士) 이문진(李文眞)이 국초의 『유기(留記)』 100권을 수정 요약하여 『신집(新集)』 5권으로 편찬하였다. 반면 백제는 삼국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역사서를 편찬하였으며, 근초고왕 30년(375) 기사에는 “백제에서는 나라를 창건한 이래로 문자로써 일을 기록한 것이 없다가 이때에 와서 박사(博士) 고흥(高興)에 의해 비로소 문자로 쓴 기록이 있게 되었다”라는 『고기(古記)』의 기록이 인용되어 있다.

「연표」는 신라의 시조 혁거세 거사간이 즉위한 해인 갑자년(B.C. 57)에서부터 후백제가 멸망한 해인 병신년(936)에 이르기까지 993년간의 세차(歲次)⁵에 대해 매 해에 해당하는 중국의 연호와 기년(紀年), 삼국에서 왕들이 즉위하고 흥서(興逝)한 연도와 더불어 그들의 재위년을 도표화한 것이다. 또한 신라에서 연호 사용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잡지」에는 <제사>, <음악>, <지리>, <관직>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열전」에는 김유신(金庾信), 을지문덕(乙支文德), 흑치상지(黑齒常之) 등 총 69명의 인물에 대한 전기(傳記)가 수록되어 있다.

삼국시대에 관한 또 다른 역사서들은 고려시대 승려 일연(一然)이 충렬왕 7년(1281)에 편찬한 『삼국유사(三國遺事)』와 조선시대 서거정 등이 성종 7년(1476)에 편찬한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가 있다. 먼저 『삼국유사』는 「왕력(王曆)」, 「기이(紀異)」, 「흥법(興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상 『삼국사기』는 정사(正史)로 『삼국유사』는 야사(野史)로 평가되고 있다(KSMA, 1996). 반면 『삼국사절요』는 성종 16년(1485)에 완성된 『동국통감(東國通鑑)』의 집필 과정에서 편찬된 편년체 역사서로 『삼국유사』, 『수이전(殊異傳)』, 『이규보집(李奎報集)』 등의 자료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삼국사기』를 대본(臺本)으로 하고 있다(KSMA, 199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삼국유사』와 『삼국사절요』의 기록은 제외하였다. 다만 『삼국유

⁴ 이 논문에서 「본기」의 백제와 고구려 멸망 이후의 기록은 제외하였다. 또한 건흥과 궁에는 각각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건국한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열전」 기록도 제외하였다.

⁵ 세차(歲次)와 일진(日辰)은 각각 매 해와 매 일에 배당된 간지를 의미한다.

³ 이하 AHN09.

사』의 「왕력」은 『삼국사기』의 「연표」와 유사하게 삼국시대 기간에 대해 세차, 중국의 연호와 기년, 삼국 왕들의 즉위년 및 재위 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삼국사기』 「연표」와의 비교에 활용하였다.

2.2. 삼국시대 금석문

금석문이란 금속, 석재, 토기, 목재 등 다양한 재료에 기록된 것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는 당대의 자료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특히 묘지명의 경우 매장자의 생몰일, 활동, 업적 등과 관련하여 많은 연호와 역일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는 백제 25대 왕인 무령왕(武寧王)의 묘지석으로, 이 지석에는 무령왕이 흥성한 날짜, 능(陵)을 이장한 날짜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이하 금석문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총 280개의 삼국시대 금석문(신라와 고구려 각각 59개, 백제 54개, 통일신라 108개) 자료를 활용하였다. 금석문정보시스템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금석문들에 대한 판독문과 해석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금석문의 경우에는 이미지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금석문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삼국시대 금석문의 해석문에서 연호와 역 관련 기록들을 발췌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총 280개의 삼국시대 금석문 중 연호와 역 관련 기록이 포함된 금석문은 107개이며, 이들은 부록 A에 제시하였다. 부록에서 첫 번째 열은 일련 번호(sequential number; SN), 두 번째 열은 금석명의 명칭, 마지막 열은 금석문의 왕조(kingdom; KD)로써 S, G, B는 각각 신라, 고구려, 백제를 의미한다. Fig. 1은 금석문의 한 예시로 <태령4년명와당>(S103)의 이미지이다.

3. 연호 기록

3.1. 「연표」의 연호 기록

중국에서는 B.C. 140년경 한무제(漢武帝) 때부터 연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연호는 건원(建元)이었다(Lee, 1985).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적도 있지만 주로 당대 중국 왕조의 연호를 사용하였다(Park, 1978). 『삼국사기』 「연표(年表)」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삼국시대 전 기간에 걸쳐 매년의 세차와 이에 해당하는 당시 중국의 연호와 그 기년이 기록되어 있다. 동시대에 여러 왕조가 존재했던 시기에는 특정 왕조의 연호를 기준으로 기년을 기록하고 아울러 다른 왕조들에서의 연호 변동 사항도 함께 기록하고



Figure 1. Image of the roof-end tile inscribed with the expression “the fourth year of the Taeryeong (太寧)”, as an example of an epigraph (sourc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있다. 예로 신라 미추이사금 8년인 세차 “기축”(269)에는 서진(西晉)의 태시(泰始) “5”년의 기년과 더불어 “오(吳)에서는 연호를 건형(建衡)으로 개칭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반면 다음 해인 세차 “경인”(270)에는 태시 “6”년만이 기록되어 있다. Table 1은 「연표」에서 기준 연호로 사용된 중국 왕조(Chinese KD)를 기간별로 요약한 것이다. 기간은 편의상 세차 대신 현재 알려진 서력 기원으로 나타내었으며, 기원전(B.C.)은 0을 포함한 음수로 표현하는 천문학적 연도표기 방식을 준용하였다. 이 방식에 의하면 -56년은 B.C. 57년을 의미한다.

Table 1에 의하면 중국에서 동시대에 여러 왕조가 존재했던 시기인 삼국시대(220 ~ 280)와 남북조시대(386 ~ 589)의 경우, 전자의 시기에는 조위(曹魏)와 서진(西晉), 후자의 시기에는 동진(東晉), 유송(劉宋), 남제(南齊), 소량(蕭梁), 진(陳)의 연호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Xue & Yi (1961)에서처럼 중국 연력표 작성에서 기준이 되는 왕조들이다. 또한 「연표」에는 신라 경덕왕 3년(744) 갑신년에는 (천보) “삼재(三載)”, 경덕왕 15년(756) 병신년에는 “지덕 원재(至德 元載)”, 그리고 경덕왕 17년(758) 무술년에는 “건원 원년(乾元 元年)”으로 표현되어 있어, 중국에서 744년에서 757년 사이에 “연(年)” 대신 “재(載)”를 사용한 역사적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연표」에는 또한 신라에서의 연호 사용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1에서처럼 시기는 서력기원으로 나타내었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오직 신라에서만 연호를 사용하였다. 최초의 연호는 법흥왕 23년(536) 병진년에 반포한 건원(建元)으로, 이는 중국에서 사용한 최초 연

⁶ <http://gsm.nricp.go.kr>

⁷ 연도를 세차만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금석문을 포함한 개수이다.

⁸ 후고구려(901 ~ 918)에서의 연호 사용에 대한 내용도 수록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Table 1. Summary of Chinese reign styles listed in the *Yeonpyo* (Chronological Table) of the *Samguksagi*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Chines KD	Period	Chines KD
-56~8	前漢	502~556	蕭梁
9~23	新	557~589	陳
23~24	玄漢	590~617	隋
25~219	後漢	618~690	唐
220~265	曹魏	690~704	武周(唐)
265~317	西晉	705~907	唐
317~419	東晉	907~923	後梁
420~479	劉宋	923~936	後唐
479~502	南齊	936	後晉

호의 명칭과 동일하다. 이후 진흥왕 12년(551) 신미년에 개국(開國), 진흥왕 29년(568) 무자년에 대창(大昌), 진흥왕 33년(572) 임진년에 홍제(鴻濟), 진평왕 6년(584) 갑진년에 건복(建福), 선덕왕(善德王) 3년(634) 갑오년에 인평(仁平), 진덕왕 2년(648) 무신년에 태화(太和)로 개원(改元)하였다. 이처럼 신라의 연호는 모두 재위 기간 중에 개원되었는데, 이는 중국에서는 통상 즉위할 때 개원하는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라의 마지막 연호인 태화(또는 대화)의 경우 「연표」에는 진덕왕 2년(648) 무신년에 개칭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본기」에는 진덕왕 원년(647) “7월”에 개칭한 것으로 되어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열전」 <김유신> 편에 의하면 “진덕왕 대화(大和) 원년 무신”이라는 기록이 있어 「본기」에서의 오류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본기」의 기록에 의하면 선왕(先王)인 선덕왕은 재위 16년(647) “8월”에 홍서하였고, 또한 진덕왕 원년(647)의 기록도 정월부터 시작하는 등, 원년 기록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표」에는 진덕왕 4년(650)에 비로소 중국의 “정삭”을 사용한 것(始行中國正朔)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본기」에서는 이 해에 비로소 중국의 영휘 “연호”를 사용한 것(是歲始行中國永徽年號)으로 표현되어 있다.

당(唐)에서는 신문왕 4년(684) 갑신년에는 한 해에 사성(嗣聖), 문명(文命), 광택(光宅)으로 세 번의 개원이, 무주(武周)에서는 효소왕 4년(695) 을미년에 증성(證聖)과 천책만세(天冊萬歲), 이듬해 병신년(696)에 만세등봉(萬歲登封)과 만세통천(萬歲通天)으로 각각 두 번의 개원이 있었지만 Table 2에서처럼 신라에서는 광택, 천책만세, (만세)등봉의 연호는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당에서는 경덕왕 15년(756) 병신년부터 2년간은 지덕(至德), 경덕왕 22년(763) 계묘년부터 2년간은 광덕(廣德) 연호를 사용하였지만, 신라에서는 이들은 사용되지 않고 여전히 당의 이전 연호들인 천보(天寶)와 보응(寶應) 연호가 각각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Table 2. Summary of the usage of the reign style in the Silla kingdom recorded on the *Yeonpyo* (Chronological Table) of the *Samguksagi*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Year	Records
536	始稱建元元年
551	改元開國
568	改元大昌
572	改元鴻濟
584	改元建福
634	改元仁平
648	改元太和
650	始行中國正朔
684	光宅羅不行
695	天冊萬歲羅不行
696	登封羅不行
756	至德羅不行 猶用天寶
763	廣德羅不行 猶用寶應
875	二月二十二日 知中國改年號 爲乾符二年
882	五月二十五日 知中國改年號 適用中和二年
886	六月 知中國改年號 迺爲光啓二年
893	知中國改年號 迺爲景福二年

로 이 연구에 활용된 신라 사료에는 광택, 천책만세, (만세)등봉, 지덕, 광덕의 연호 기록은 없다(Table 3과 부록 A 참조)⁹.

마지막으로 헌강왕 원년(875) 을미년, 8년(882) 임인년, 정강왕 원년(886) 병오년, 7년(893) 계축년에는 중국에서 연호를 개원하였음에도 이를 뒤늦게 알게 되어서 2년 차부터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건부(乾符) 원년(874)에는 함통(咸通) 15년, 중화(中和) 원년(881)에는 광명(廣明) 2년, 광계(光啟) 원년(885)에는 중화(中和) 5년, 경복(景福) 원년(892)에는 대순(大順) 3년의 연호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항은 875년과 882년에는 중국에서 개원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구체적인 시점(각각 2월 22일, 5월 25일)까지도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3.2. 사료의 연호 기록

『삼국사기』 「연표」에 수록된 연호들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본기」, 「잡지」, 「열전」 그리고 당대의 금석문 기록을 분석하였다. Table 3은 사료에 나타난 삼국시대 연호 기록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첫 번째 열은 일련번호(SN)이고 두 번째 열은 사료에 기록된 연호(reign style; RS)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열은 「연표」를 토대로 그 연호를 사용한 왕조

⁹ Table 3에서 R54의 광택 연호는 중국 소재 고구려 금석문의 기록이다.

Table 3. Summary of the reign style records from the *Samguksagi*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and the epigraph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SN	RS ¹	KD	Period	Source ⁵
R01	五鳳	前漢	-56~-53	SSBs, SSJs
R02	建昭	前漢	-37~-33	SSBg, SSBb, SSJg
R03	鴻嘉	前漢	-19~-16	SSBb, SSJb
R04	建武	後漢	25~55	SSBg, SSYs
R05	建光	後漢	121	SSBg
R06	本初	後漢	146	SSBg
R07	建安	後漢	196~219	SSBg
R08	景初	曹魏	237~239	SSBg
R09	正始	曹魏	240~248	S010, S019
R10	太寧	東晉	323~325	S103
R11	永和	東晉	345~356	S029
R12	永樂	高句麗	391~413 ²	S104, S105
R13	延壽	高句麗?	451~??? ²	S041
R14	延興	北魏	471~476 ³	SSBg
R15	延嘉	高句麗?	473~482 ²	S083
R16	太和	北魏	477~499 ³	S037
R17	建元	南齊	479~482	SSBb
R18	永明	南齊	483~493	SSBb
R19	永康	高句麗?	483~491 ²	S075
R20	天監	蕭梁	502~519	S019, SSJs
R21	景	高句麗?	508~??? ²	S072
R22	普通	蕭梁	520~526	SSJs
R23	中大通	蕭梁	529~534	SSBg, SSBs
R24	普泰	北魏	531 ³	SSBg
R25	建興	高句麗?	532~??? ²	S067
R26	大同	蕭梁	535~545	SSBg
R27	武定	東魏	543~550 ³	SSBg
R28	太清	蕭梁	547~549	SSBg
R29	太寶	蕭梁	550~551	SSJs
R30	太平	蕭梁	556	SSJs
R31	永定	陳	557~559	SSJs
R32	太昌	新羅	568~571	S035
R33	開皇	隋	581~600	SSBg, SSYg, SSYs
R34	建福	新羅	584~633	SSYs
R35	武德	唐	618~626	S006, SSYs
R36	貞觀	唐	627~649	S025, S026, S043, S046, SSYs, SSBs, SSJs
R37	仁平	新羅	634~647	S046, SSYs
R38	太和	新羅	648~649	SSBs, SSYs
R39	永徽	唐	650~655	S006, S043, SSBs, SSYs
R40	顯慶	唐	656~660	S023, S026, S042, S043,

				SSJs, SSBs, SSJb, SSYs, SSYb
R41	龍朔	唐	661~663	S006, S038, SSYs, SSBs
R42	麟德	唐	664~665	S023, SSBs, SSYs, SSJs
R43	乾封	唐	666~667	S025, S077, SSYs, SSYg, SSBs
R44	總章	唐	668~669	S006, S077, S085, S092, SSBs, SSBg, SSYs, SSJg
R45	咸亨	唐	670~673	S006, S023, SSBs, SSJs, SSYs
R46	上元	唐	674~675	S014, S017, SSYs
R47	儀鳳	唐	676~678	S018, S077, SSYs
R48	調露	唐	679	S020, S077, S078, SSYs
R49	永隆	唐	680	S085, SSJs
R50	開耀	唐	681	S078
R51	永淳	唐	682	S026, S078
R52	弘道	唐	683	S012
R53	文明	唐	684	SSYs
R54	光宅	唐	684	S078, S085
R55	垂拱	唐	685~688	S005, S012, S023, S078, S095, SSJs
R56	永昌	唐	689	S012
R57	載初	唐	690	SSYs
R58	天授	武周	690~691	S012, S047, S078, S092
R59	延載	武周	694	SSYs
R60	萬歲通天	武周	696	S085
R61	聖曆	武周	698~699	S023, S047, S085, S092
R62	久視	武周	700	S078
R63	大足	武周	701	S047, S078, S092, SSBs
R64	長安	武周	701~704	S006, S092, SSBs
R65	神龍	武周	705~706	S021, S047, S049, S097

R66	景龍	唐	707~710	S049
R67	景雲	唐	710~711	SSYs
R68	開元	唐	713~741	S033, S044, S086, S091, SSYs
R69	天寶	唐	742~756	S013, S058, S090, SSBs, SSYs
R70	乾元	唐	758~759	S070
R71	寶應	唐	762	S058
R72	永泰	唐	765	S008, S051, S088, SSBs
R73	大曆	唐	766~779	S080, S087, S089, S095, SSBs, SSYs
R74	貞元	唐	785~805	S030, S050, S063, S064, S079, S082, S095, S107, SSBs
R75	元和	唐	806~820	S008, S022, S061, S063, S087, SSYs
R76	長慶	唐	821~824	S031, S094, SSBs, SSYs
R77	寶曆	唐	825~826	S015, S027, SSBs
R78	太和	唐	827~835	S036, S053, S060, S063, S070, S074, S096, SSBs, SSJs, SSYs
R79	開成	唐	836~840	S016, S022, S063, S066, S070, SSYs
R80	會昌	唐	841~846	S009, S031, S096, S102
R81	大中	唐	847~859	S001, S007, S031, S056, S063, S065, S070, S081, S102, SSYs
R82	咸通	唐	860~873	S001, S022, S030, S031, S034, S040, S046, S048, S052, S054,

				S059, S068, S069, S070, S094, S098, S101, S102
R83	乾符	唐	874~879	S031, S055, S094, SSYs
R84	廣明	唐	880	S040, S070
R85	中和	唐	881~884	S027, S030, S031, S070, S084, S094, S102, SSYs
R86	光啓	唐	885~887	S040, S063, SSBs, SSYs
R87	文德	唐	888	S001, S031
R88	龍紀	唐	889	S059, S100, S102, SSYs
R89	大順	唐	890~891	S027
R90	景福	唐	892~893	S101, SSYs
R91	乾寧	唐	894~897	S027, S062, S071, S073, S076, S093
R92	天復	唐	901~903	S099
R93	天祐	唐	904~906	S027
R94	正開	後百濟?	901~???	S057
R95	貞明	後梁	915~920	S001
R96	龍德	後梁	921~922	S001, S027, S094

¹Reign style, ²Jung (1998), ³Lee (2014), ⁴Eom (2016),
⁵Refer to text.

(KD)와 사용기간(period)으로 “-” 부호의 의미는 Table 1에서와 같다. 마지막 열은 출처(source)이다. S로 시작하는 세 자리 숫자는 부록 A에서의 일련번호이며, SSB, SSI, SSY는 각각 『삼국사기』(SS)의 「본기」(B), 「잡지」(J), 「열전」(Y)을 의미하며, 소문자 s, g, b는 각각 신라(Silla), 고구려(Goguryeo), 백제(Baekje)의 기록임을 의미한다. 예로, SSBg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를 의미한다.

Table 3에서처럼 이 연구에 사용한 사료에 나타난 삼국시대 기간 동안의 연호는 총 96종이다. 아래 세부 절에서는 이들 사료에 나타난 우리나라 삼국의 연호와 더불어 시기별 중국의 연호에 대해 분석하였다.

3.2.1. 삼국의 연호

고구려의 독자적 연호로 평가받고 있는 R12의 영락(永樂) 연호는 <광개토왕릉비>(S104)와 <덕흥리고분묘지명·목서명>(S105)에 기록되어 있다. 먼저 <광개토왕릉비>는 가장 많이 연구된 금석문 중 하나이며, 특히 신

묘년 조(條)로 일컬어지는 기록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도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Chun, 2016). 또한 이 금석문에 의하면 광개토왕 즉위년은 신묘년(391)이며, 이는 『삼국사기』에서의 임진년(392)과 1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개토왕 즉위년이 신묘년(391)이라는 사실은 <덕흥리고분묘지명·목서명>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Table 7 C16 참조). 현대 연력표에서는 광개토왕 즉위년은 금석문의 기록과 같은 신묘년으로, 반면 장수왕 즉위년은 『삼국사기』의 기록과 같은 계축년(413)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광개토왕릉비>에는 18세에 왕위에 올라 39세에 흥서하여, 갑인년(414) 9월 29일에 산릉으로 모신 사실 또한 기록되어 있다. 만일 광개토왕이 18세에 즉위한 해가 신묘년이면 39세에 흥서한 해는 임자년(412)이 된다. 따라서 즉위년칭년법을 적용하면 장수왕 즉위년은 같은 해인 임자년이 된다¹⁰. 이 경우 「고구려본기」에서 광개토왕 이후 모든 기록의 연도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Kim(2012)에 의하면 「고구려본기」의 장수왕 23년(435) 6월과 24년(436) 5월의 기록들은 『위서』의 기록들과 연도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¹. 또한 광개토왕 즉위년을 신묘년(391), 장수왕의 즉위년을 임자년(412), 4.1절에서 논의할 것처럼 문자명왕의 즉위년을 신미년(491)으로 보면, 광개토왕과 장수왕의 재위 기간은 각각 21년과 79년이 되며, 이는 「연표」에서의 재위 기간과 같게 된다. 『삼국사기』의 광개토대왕, 장수왕, 문자명왕의 즉위년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일식 기록처럼 일진이 알려진 천문현상 기록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림왕 13년(383)의 해성 관측 기록 이후 양원왕 11년(555)의 금성 관측 기록까지 약 170년 기간 동안 고구려의 천문현상 기록은 없다(Ahn et al., 2014).

Song(1966), Jung(1998) 등은 영락뿐만 아니라 R13의 연수(延壽), R15의 연가(延嘉), R19의 영강(永康), R21의 경(景)¹², 그리고 R25의 건흥(建興)도 고구려의 연호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 논문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며, 대신 연수와 연가 연호에서 “수(壽)”와 “가(嘉)”의 한자가 유사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후자가 전자의(또는 전자가 후자의) 오기(誤記)일 가능성이므로, 다른 금석문 기록에서도 이러한 오기들이 발견된다. 예로 당(唐)의 연호인 ‘開成’을 ‘開城’, ‘中和’를

‘仲和’, ‘垂拱’을 ‘壽拱’으로 오기한 사례들이 있다. 다만 이 사례들의 경우 연수와 연가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같은 음(音)의 한자로 오기되어 있다.

고구려나 백제와는 달리 신라에서는 Table 2에서처럼 건원(建元), 개국(開國), R32의 대창(大昌), 홍제(鴻濟), R34의 건복(建福), R37의 인평(仁平), 그리고 R38의 태화(太和)의 자체 연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까지는 건원, 개국, 홍제의 연호는 사료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 대(大)는 태(太)(또한 그 반대로)로도 사용되는데, <마운령신라진흥왕순수비>(S035)에는 대창 연호가 태창(太昌)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건복과 태화 연호는 「열전」에서 첫 번째 인물인 <김유신(金庾信)> 편에서 그의 생애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건복은 여러 차례 나타난다. Table 2에 의하면 건복 연호는 갑진년(584)에 개칭되었기에 이 해가 원년이다. 다만 CRC(2008)는 『삼국사기』를 국역하는 과정에서 수나라 개황 15년을 건복 17년으로 하여¹³ 이 연호와 관련된 원문의 기년과 세차를 모두 잘못 번역하고 있다. 인평 연호는 「열전」과 <황룡사9층목탑찰주본기>(S046)에도 나타나는데 특히 후자에는 ‘(선덕) 대왕 즉위 7년 대당 정관 12년 우리나라 인평 5년 무술년에 사신 신통(神通)을 따라.....’¹⁴라고 기록하고 있어 신라가 자체의 연호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대 중국 왕조의 연호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실상사편운화상부도>(S057)에는 부도(浮圖)의 건립 시기와 관련하여 ‘정개10년경오세건(正開十年庚午歲建)’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R94의 정개(正開)는 후백제의 연호(따라서 910년에 건립되었다는)라는 주장이 현재까지는 큰 반론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Eom, 2016).

3.2.2. 전한, 후한의 연호

가장 이른 시기의 연호는 「신라본기」에서 시조 혁거세 거사간의 즉위년과 관련하여 기록된 R01의 전한(前漢) 오봉(五鳳)이다.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신라의 시조는 오봉 원년인 “갑자년”에 즉위하였으며, 아울러 「본기」에서 왕이 흥서한 날짜를 기록한 예는 있지만 “4월 병진 [정월 15일이라고도 한다]”이라고 즉위 날짜까지 기록한 경우는 유일하다. 또한 재임 60년(B.C. 57 ~ A.D. 3) 기간 동안에 일어난 7번의 일식 모두 일진까지도 기록되어 있다(4.4.3절 참조).

R02의 건소(建昭)와 R03의 홍가(鴻嘉)는 각각 고구려와 백제의 시조인 동명성왕과 온조왕의 즉위년과 관련된 연호이다¹⁵. 반면 후한(後漢)의 연호인 R04, R05,

¹⁰ 광개토왕이 흥한 때가 12월 말경이면 「연표」에서처럼 다음 해인 계축년(413)이 장수왕 원년이 될 수도 있으나, 「본기」에 의하면 10월에 흥서하였다.

¹¹ Kim(2012)은 436년의 경우 『삼국사기』에서는 5월의 기록이지만, 『위서』에서는 4월 무오일의 기록이어서 고구려의 5월 기록이 오기이거나 기록에서 한 달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436년 4월의 경우 무오일이 없으며, 5월 8일경이 무오일이기에 『위서』에서의 오기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¹² 외자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¹³ 개황 15년은 건복 17년이 아닌 진평왕 17년이다.

¹⁴ (善德) 大王卽位七年 大唐貞觀十二年 我國仁平五年 戊戌歲 隨我使神通

R06의 건무(建武), 건광(建光), 본초(本初)는 『삼국사기』의 편찬자들이 고구려 태조대왕의 재임 기간과 그의 아들 차대왕의 즉위년에 대해 여러 문헌들에서의 차이를 평가하면서 언급되는 연호들이다. 특히 건무 연호는 고구려 대무신왕의 기록에서는 고려 태조의 이름인 “건(建)”을 피휘하여 입무(立武)로 기록되어 있다. R07의 건안(建安) 연호는 「고구려본기」 고국천왕 기사에서 두 번 나타난다. 이들 외에도 『삼국사기』에 수록된 연호들의 상당수는 앞서 태조대왕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왕들의 재임 기간과 관련하여 문헌들에서의 차이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3.2.3. 조위, 동진의 연호

조위(曹魏, 220 ~ 265)의 연호인 R08의 경초(景初)는 동천왕 11년(237)에 고구려가 위에 사신을 보내 개원(改元)한 것을 치하했다는 기사에서 나타나는데, 이 연호의 원년은 기사의 연대와 같은 237년이다. 반면 금석문에서 보이는 가장 오래된 연호는 고구려의 <위관구검기공비>(S010)와 통일신라의 <아도비>(S019) 비문(碑文)에 기록된 R09의 정시(正始)로 조위에서 9년(240 ~ 248)간 사용되었다. 이처럼 중국의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기간의 사료에서도 Table 1의 조위 연호가 나타나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당시 신라, 고구려, 백제의 역일은 중국 왕조들과 다르고 또한 삼국도 서로 달랐을 수도 있지만, 만일 중국 왕조의 역일을 사용했다면 이 시기에는 조위의 것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Xu(1992, hereafter XU92)에 의하면 당시 조위, 촉한(蜀漢, 221 ~ 263), 손오(孫吳, 222 ~ 280)는 음력 초하루 일진(따라서 달의 대·소)에 차이가 있었다. HAN02와 AHN09의 우리나라 삼국시대 연력표에서 222 ~ 263년 기간의 자료를 조위의 역일과 비교해보면 음력 초하루 일진에서 상당수가 차이를 보이는 반면 촉한의 역일과는 완전히 일치한다. 또한 이 기간에는 음력 초하루의 일진뿐만 아니라 241, 246, 249, 257, 263년의 경우 조위와 촉한에서는 윤달에서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삼국의 역일이 실제로 조위 또는 촉한과 같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기록으로는 『삼국사기』의 구수왕 9년(222) 6월 그믐 경신(庚申)과 첨해이사금 10년(256) 10월 그믐의 일식 기록이 있지만(4.4절 참조), 전자의 경우 중국의 삼국 모두가 이날의 일진이 같고, 후자의 경우 일진이 없을 뿐만 아니라 256년에는 동아시아에서 관측이 가능한 일식이 없었다(Lee et al. 2011). 또한 금석문에는 이 시기의 역일 관련 기록이 없어, 현재로서는 삼국이 어느 왕조와 역일이 같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Figure 2. Enlarged image of the part inscribed the cyclic year [歲次] in Fig. 1, which is illegible. The area corresponding to the second character in the name of the cyclic year is marked with a red circle.

사료에서 정시 다음으로 이른 시기의 연호는 동진(東晉, 317 ~ 418)의 태령(太寧)과 R11의 영화(永和)이며, 이들은 각각 3년(323 ~ 325)과 12년(345 ~ 356)간 사용되었다. 그러나 <태령4년명와당> 금석문에는 “태령4년 태세□□¹⁶ 윤월 6일 기사일에 만들었다(太寧四年太歲□□閏月六日己巳造)”로 기록되어 있다. 태령이라는 연호는 중국 역사상 동진, 후조(後趙, 319 ~ 352), 북제(北齊, 550 ~ 577) 등에서 사용되었으나 모두 4년까지 사용된 예는 없어 오래전부터 논쟁이 되어왔다. 태령 4년을 3년의 오기로 보고 고구려 미천왕 26년(325)이라는 견해가 있으며, 이는 325년 세차 을유(乙酉)에는 윤8월이 있고 이달 6일의 일진이 기사(己巳)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반면 명문이 명확히 4년이고 동진의 “(326년) 봄 2월 대사령을 내리고 개원하였다”라는 기록으로부터 326년 1월까지 태령 4년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명문 중 보이지 않는 부분(Fig. 2에서 붉은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을 326년의 세차인 병술(丙戌)로 추정하고 있다(Ki, 2016 참조).

태령 4년처럼 <안악3호분목서명>(S029)에도 연호가 사용되지 않은 시기에 해당하는 영화(永和) 13년이라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해 10월 음력 초하루 일진 기록(Table 7의 C14 참조)도 있어 357년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개원 이후에도 용기(龍紀) 3년처럼 기존 연호를 사용한 예는 다른 금석문 기록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심지어 조선시대 역서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2013).

중국에서 조위 이후에서 동진 이전 시기에 존재했던

¹⁵ 고구려: 是漢孝元帝 建昭二年(B.C. 37); 백제: 是前漢成帝 鴻嘉三年(B.C. 18).

¹⁶ 이 논문에서 “□”는 판독이 불가능한 한자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왕조들로는 손오(孫吳), 서진(西晉) 등이 있었지만, 이 시기의 연호들은 현재 사료의 기록에는 없다. 다만 손오와 서진 왕조가 겹치는 시기인 265 ~ 280년에 대해 현재 통용되는 삼국시대 연력표와 두 왕조의 음력 초하루 일진을 비교해보면 「연표」에 기록된 것이 서진(Table 1 참조)과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동진과 북위(北魏, 386 ~ 534) 왕조가 겹치는 시기인 386 ~ 419년에 대해 비교해보면 두 왕조의 역일은 서로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

3.2.4. 북위, 남제, 소량, 동위, 진, 수의 연호

「연표」에서 420 ~ 479년 기간 동안에는 유송(劉宋, 420 ~ 479)의 연호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사료들에서는 이 기간에 R14의 연흥(延興), R16의 태화(太和) 등 북위(北魏, 386 ~ 534)의 연호들도 기록되어 있다. 특히 북위의 연호들이 기록된 사료들이 모두 고구려의 것이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비록 신라나 백제에서는 이 시기에 유송의 연호를 사용했을지라도 적어도 고구려는 북위의 연호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연흥 연호는 장수왕 59년(471)에 민노각(民奴各) 등이 위나라로 가서 항복한 사건과 관련된 기록에서 나타나고 있으며¹⁷, 더불어 장수왕 때의 기사를 보면 비록 (유)송과도 교류하였지만 장수왕 23년(435) 이후 거의 매년 위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당시 고구려는 북위와 매우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태화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라에서도 사용된 연호이지만 R16의 태화가 기록된 <태화13년명석불상>(S037)에는 “대대태화13년(大代太和十三年)”으로 되어 있어 북위의 연호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사료에는 479 ~ 556년 기간에 대해서는 「연표」에서와 부합하는 남제(南齊, 479 ~ 502)와 소량(蕭梁, 502 ~ 556)의 연호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남제의 연호인 R17의 건원(建元)과 R18의 영명(永明)은 「백제본기」에, 소량의 연호인 R20의 천감(天監), R22의 보통(普通), R23의 중대통(中大通), R26의 대동(大同), R28의 태청(太淸), R29의 태보(太寶), R30의 태평(太平) 등은 사료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고구려 사료에는 소량의 연호뿐만 아니라 북위의 연호인 R24의 보태(普泰)와 동위(東魏, 534 ~ 550)의 연호인 R27의 무정(武定)도 기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소량의 연호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¹⁸. 이는 고구려에서는 북위의 연호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위의 역일을 동진, 유송, 남제, 소량과 비교해보면, 동진

과는 같았으나 유송과는 445년부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여 남제와 소량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XU92 참조). 반면 현대 연력표들은 동진, 유송, 남제, 소량과 역일이 일치함을 보인다. 소량이 589년에 망하고 당이 618년에 개국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표」에서는 진(陳, 557 ~ 589)과 수(隋, 590 ~ 617)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본기」와 「열전」에서도 진의 연호인 R31의 영정(永定)과 수의 연호인 R33의 개황(開皇)이 나타나고 있다.

3.2.5. 당, 후량의 연호

이 연구에 사용된 사료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연호는 측천무후(則天武后)가 건국한 무주(武周, 690 ~ 705년)를 포함한 당(唐, 608 ~ 907년)의 것이다. 아울러 당에서 사용되었던 대부분의 연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후대의 금석문일수록 그 개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당이 통일왕조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의 초기 연호를 시대순으로 나열하면 먼저 R35의 무덕(武德)을 시작으로 R36의 정관(貞觀), R39의 영휘(永徽), R40의 현경(顯慶), R41의 용삭(龍朔), R42의 인덕(麟德), R43의 건봉(乾封), R44의 총장(總章), R45의 함형(咸亨), R46의 상원(上元), R47의 의봉(儀鳳)이다. 상원 연호는 674년부터 2년간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울주천리각석-상원4년명>(S017)에서의 상원 4년은 다음 연호인 의봉 2년(677)에 해당한다. 이후에는 R48의 조로(調露), R49의 영룡(永隆), R50의 개요(開耀), R51의 영순(永淳), R52의 홍도(弘道)로 매년 개원이 되었으며, 684년에는 한 해에만 사성(嗣聖), R53의 문명(文明), R54의 광택(光宅)으로 세 번 개원되었다. 그리고 R55의 수공(垂拱)을 제외하고 측천무후가 집권하기 이전까지는 R56의 영창(永昌)과 R57의 재초(載初)로 이들 또한 매년 개원되었다.

이처럼 빈번한 개원이 있었던 시기의 연호들이 기록되어 있는 금석문 중의 하나는 <천남생묘지명>(S077)이다. 중국 낙양(洛陽)에서 출토된 이 금석문은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대의 실권자였으나 실각당한 후 당에 투항한 유민(遺民) 천남생(泉男生)의 묘지석으로(Kim & Cho, 2016), 의봉 4년과 조로 원년처럼 같은 해(679년)에 대해 두 가지 연호가 기록되어 있다. 엄밀하게는 의봉 연호는 676년 11월 8일부터 679년 6월 2일까지, 조로 연호는 679년 6월 3일부터 680년 8월 22일까지 사용되었다. 또한 <천현성묘지명>(S078)에도 682년으로 같은 해인 개요 2년과 영순 원년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사료에서 연호들이 기록된 시간상 순서로 판단하건대, 개원 시점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주에서는 R58의 천수(天授), 여의(如意), 장수(長壽),

¹⁷ “가을 9월에 민노각 등이 ~ 주택을 주었다. 이때는 위나라 고조(高祖) 연흥 원년이었다”. 연흥 원년은 장수왕 59년(471) 세차 신해이다.

¹⁸ 是梁中大通三年 魏普泰元年也; 是梁大同十一年 東魏武定三年也.

R59의 연재(延載), 증성(證聖), 천책만세(天冊萬歲), 만세 등봉(萬歲登封), R60의 만세통천(萬歲通天), 신공(神功), R61의 성력(聖曆), R62의 구시(久視), R63의 대족(大足), R64의 장안(長安), R65의 신룡(神龍) 순으로 개원되었다. 이 시기의 사료인 <고자묘지명>(S085)에는 신라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광택 연호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묘지명은 <천남생묘지명>, <천현성묘지명>, <고진묘지명>(S089), <고현묘지명>(S012), <천비묘지명>(S091) 등과 더불어 중국 소재 한국 금석문들이다(Kwaak et al., 2015). 이로 인해 이들 금석문에 나타난 연호들은 「연표」에서 신라의 연호 사용에 대한 기록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족 2년(702)에 효조대왕(孝昭大王, 효소왕)이 승하하였다”라는 사실이 기록된 <황복사석탑금동사리합기>(S047) 등은 삼국시대 연대를 검증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무주 시대가 705년에 끝이 나고 당이 개건되었지만 연호는 707년에서야 R66의 경룡(景龍)으로 개원되었다. 이후 당룡(唐隆), R67의 경운(景雲), 태극(太極), 연화(延和), 선천(先天), R68의 개원(開元), R69의 천보(天寶), 지덕(至德), R70의 건원(乾元), 상원(上元), R71의 보응(寶應), 광덕(廣德), R72의 영태(永泰), R73의 대력(大曆) 순으로 개원되었다. 이들 중 <감산사석조아미타불입상조상기>(S044) 등에서 보이는 개원은 당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된 연호이다. 그리고 <갈항사석탑기>(S013)의 “천보 17년 무술”(건원 원년, 758)과 <안압지출토목간>(S058)의 “보응 4년”(영태 원년, 765) 등은 신라에서는 지덕과 광덕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Table 2의 기록을 입증해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대력 이후 당에서 사용된 연호들은 건중(建中), 흥원(興元), R74의 정원(貞元), 영정(永貞), R75의 원화(元和), R76의 장경(長慶), R77의 보력(寶曆), R78의 태화(太和), R79의 개성(開成), R80의 회창(會昌), R81의 대중(大中), R82의 함통(咸通)이다. 사료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함통 연호 이후에는 R83의 건부(乾符), R84의 광명(廣明), R85의 중화(中和), R86의 광계(光啟), R87의 문덕(文德), R88의 용기(龍紀), R89의 대순(大順), R90의 경복(景福), R91의 건녕(乾寧), 광화(光化), R92의 천복(天復), 그리고 마지막으로 R93의 천우(天佑)이다. 건부, 중화, 광계, 경복의 연호는 개원 후 2년부터 신라에서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Table 2 참조), 「열전」 <최치원>편에서는 건부 원년과 광계 원년의 기록이 있다¹⁹. 또한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S094)에도 “중화신축년(中和辛丑年)” 즉, 중화 원년(881)의 기록이 있으며, 이들은 사료의 기록들이 모두 후대에 작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승복사비>(S030)에는 “중화을사년(中和乙巳

年)”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이는 중화 5년 즉 광계 원년(885)이다. 또한 <영양연당동석불좌상조상기>(S100)에는 “□紀元年己酉”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이는 기유년인 용기(龍紀) 원년(889)으로 추정된다. 이 연호는 오직 한 해만 사용되었고 이듬해에는 대순으로 개원되었지만 <월광사원랑선사대보선광탑비>(S102)와 <개선사석등기>(S059)에는 이들 금석문의 제작 시기를 각각 용기 2년(대순 원년)과 용기 3년(대순 2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이 907년에 멸망함에 따라 통일신라 말기에는 「연표」에서처럼 후량(後梁, 907 ~ 923)과 후당(後唐, 923 ~ 936)의 연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후량에서는 개평(開平), 건화(乾化), 봉력(鳳曆), R95의 정명(貞明)²⁰, R96의 용덕(龍德), 후당에서는 동광(同光), 천성(天成), 장흥(長興), 응순(應順), 청태(淸泰) 연호를 사용하였다. 비록 삼국시대 사료에는 정명과 용덕의 연호만이 기록되어 있지만 고려(高麗, 918 ~ 1392) 초기 금석문에는 동광, 천성, 장흥, 청태 등의 연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2016)²¹.

4. 역일 기록

음력은 달의 운동을 기반으로 태양의 운동을 고려한 역법으로, 1년은 12달로 이루어져 있다. 매달의 초하루는 합삭일이며, 한 달의 길이는 달의 위상변화 주기인 삭망월로 결정된다. 삭망월은 약 29.5일이며 따라서 한 달은 29일 또는 30일이 되는데 전자를 소월(小月), 후자를 대월(大月)이라고 한다(Park & Ahn, 2019). 또한 음력은 1 태양년과는 약 11일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절과 맞추어 주기 위해 대체로 3년마다 1번(엄밀하게는 19년에 7번)의 윤달을 둔다. 이 장에서는 역일 관련 기록들을 대·소월, 윤달, 일진, 기타의 네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역일 기록 분석에 앞서 기록의 정확한 연대 동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연표」의 즉위년 기록을 분석하고 「왕력」의 기록과도 비교하였다.

4.1. 즉위년 기록

「연표」에는 연호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삼국시대 왕들의 즉위년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 「연표」에는 신라 미추이사금과 소성왕, 고구려 문자명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왕(先王)이 흥성한 해를 이어서 즉위하는 왕의 원년으로 하는, 즉 즉위년칭년법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즉위년칭년법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신라 미

¹⁹ 궁예와 견훤의 「열전」에는 경복 원년이라는 기록도 나타난다.

²⁰ 봉력 이후 정원으로 개원하기 전까지 건화 연호가 다시 잠시 사용되었다.

²¹ 「열전」의 <궁예>와 <견훤>편에도 개평, 건화, 동광, 천성, 장흥, 청태 등의 연호들이 기록되어 있다.

추이사금과 소성왕, 고구려 문자명왕의 경우 「본기」의 기록에 의하면 각 왕들의 선왕들인 첨해이사금은 12월 28일, 원성왕은 12월 29일, 장수왕은 12월에 홍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의하면 5일장이 끝나면 ‘즉위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²². 따라서 이를 적용해보면 미추이사금과 소성왕의 경우 선왕이 홍서한 다음 해가 즉위 원년이 된다. 특히 미추이사금의 즉위 원년이 임오(壬午)년이라는 사실은 <아도비> 금석문에 나타난 “미추왕 즉위 2년 계미”라는 기록으로도 검증된다.

삼국시대 106명²³의 왕들 중에서 12월에 홍서한 사례는 9번이다. 이 중 신라 진성왕은 이미 6월에 양위(讓位) 하였다. 12월에 홍서한 왕들 중에서 그 날짜까지 기록된 경우는 앞서 신라 첨해이사금과 원성왕 두 왕뿐이다. 반면 『삼국사기』에는 장수왕이 홍서한 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위서(魏書)』에 의하면 12월 계사일(6일경)로 알려져 있다(Kim, 2012)²⁴. 따라서 삼국시대에도 선왕이 홍서하고 5일 후쯤에 즉위하였다고 가정하면 「연표」에서 문자명왕 원년은 선왕인 장수왕이 홍서한 해인 신미년(491)이 되어야 하고, 「본기」에서 3월의 기사부터 시작되는 ‘원년’은 ‘2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백제 위덕왕(威德王)은 선왕인 성왕(聖王)이 홍서한 갑술년(554)에 즉위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백제창왕명석조사리감>(S002)에는 창왕(위덕왕) 13년이 정해년(百濟昌王十三年太歲在丁亥)으로, 다시 말해서 위덕왕 원년이 을해년(555)으로 기록되어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왕의 죽음 과정에 대해서는 「백제본기」보다 「신라본기」의 기록이 더 자세하며, 진흥왕 15년(554)의 기사에는 “가을 7월에 명활성을 수축하였다. 백제왕 명농(성왕)이 가랑과 함께 와서 관산성을 쳤다. … 고간도도가 급격히 몰아쳐 백제왕을 죽였다”라고 되어있어 성왕은 7월에 홍서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본서기』의 기록에 의하면 관산성 전투는 12월 9일경에 있었다(Jeon, 2009). 만일 일본의 기록이 옳다면 성왕이 12월 말경에 홍서함에 따라 위덕왕이 이듬해인 을해년(555)에 즉위²⁵했을 개연성이 크고, 이 경우 <백제창왕

Table 4. Comparison of the accession year and the reign period between the *Yeonpyo* (Chronological Table) and the *Wangryeok* (Royal Chronicle)

King	<i>Yeonpyo</i>	<i>Wangryeok</i>
善德王	[壬辰] 眞平王薨. 善德王德曼 即位元年.	第二十七 善德女王 … 仁平甲午立 治十四年.
(昭聖王) /哀莊王	[庚辰] 昭聖王薨. 哀莊王重熙 即位元年.	(第三十九 昭聖王 … 己卯立而崩)/ 第四十 哀莊王 … 辛卯立 理十年 元和四年 己丑 七月十九日 … 崩.
閔哀王 /神武王/ (文聖王)	[戊午] 僖康王薨. 閔哀王明 即位元年. [己未] 閔哀王薨. 神武王祐徵即位 不踰年而薨. 文聖王慶膺 即位元年.	第四十四 閔哀王 … 戊午立 至己未正月 二十二日 … 崩. 第四十五 神武王 … 己未四月立 至十一月 二十三日崩. 第四十六 文聖王 … 己未十一月立 理十九年.
憲安王/ (景文王)	[丁丑] 文聖王薨 憲安王誼靖 即位元年 [辛巳] 憲安王薨 景文王膺廉 即位元年	第四十七 憲安王 … 戊寅立 理三年 第四十八 景文王 … 辛巳立 理十四年

명석조사리감>의 기록도 설명될 수 있다. 이 경우 “겨울 10월 고구려가 … 패배를 당하고 돌아갔다.”라는 위덕왕 원년 기록도 연도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삼국사기』 기록에서 이러한 연도 착란이 있을 경우 다른 해 기록들의 연도를 순차적으로 뒤로 또는 앞으로 모두 조정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Kim, 2007), 일부 기록들만 연도를 조정하거나 전후 두 시기의 기록을 한 해의 기록으로 볼 수도 있다. 예로, 문자명왕 원년과 2년의 기록을 모두 2년의 기록으로 보는 것이다. 2년의 기록은 단순히 “겨울 10월에 지진이 있었다”라는 내용뿐이며, 또한 원년의 마지막 기사도 10월의 사건이어서 기록의 월별 순서상에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위덕왕의 경우 원년 기록 다음에는 6년의 기록이다. 따라서 원년을 2년 또는 그 후년으로 조정하여도 기록의 연도 순서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백제 위덕왕 원년의 기사는 고구려 양원왕 10년(554)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연도 조정에서는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양원왕 10년 기록에는 일식의 기사가 있지만(Table 7의 CV 참조), 이 무렵에는 관측 가능한 일식이 없었다

²² 예로, 세종은 1450년 2월 17일에 홍서하였으며, 문종은 2월 22일에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²³ 신라 56명, 고구려 28명, 백제 30명 중 각 왕조의 마지막 세 왕(신라 경순왕, 고구려 보장왕, 백제 의자왕)과 『삼국사기』 기록에서 홍서한 날짜를 알 수 없는 다섯 왕(고구려의 민중왕, 서천왕, 문자명왕, 백제의 개루왕, 구수왕)을 제외한 수이다.

²⁴ 『위서』에 의하면 또한 문자명왕은 12월 경신일(15일경)에 홍서하였다.

²⁵ 그러나 『일본서기』에는 위덕왕은 정축년(557)에 즉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Jeon, 2009).

(4.4절 참조).

다음으로 『삼국사기』의 「연표」와 『삼국유사』의 「왕력」에서의 즉위년 기록을 비교해보면, 일부 왕들의 경우 차이를 보이고 있다. Table 4는 차이를 보이는 기록들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신라 27대 왕인 선덕왕(善德王)은 「연표」에 의하면 임진년(632)에 즉위하여 16년간 재임한 것으로, 「왕력」에서는 인평(仁平) 갑오년(634)에 즉위하여 14년간 재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 「기이」에서는 정관 6년(632) 임진년에 즉위하여 16년간 재임한 것(貞觀六年壬辰即位 御國十六年)으로 되어있으며, 또한 <황룡사9층목탑찰주본기> 금석문 기록에는 무술년(638)을 즉위 7년으로 기록하고 있어 갑오년에 즉위하였다는 「왕력」의 기록은 오류로 판단된다. 갑오년(634)은 신라에서 연호를 건복에서 인평으로 개칭한 해이다(Table 2 참조).

애장왕(哀莊王)의 경우 「연표」에 의하면 선왕인 소성왕(昭聖王)은 기묘년(799)에 즉위하였고, 이듬해인 경진년(800)에 홍서하여 이 해에 즉위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본기」에 의하면 소성왕은 재위 2년인 경진년(800) 6월에 홍서하였다. 반면 「왕력」에서는 소성왕은 기묘년에 즉위하여 그해에 홍서하였고(己卯立而薨), 애장왕은 신묘년에 즉위하여 10년간 재임 후(辛卯立 理26十年) 원화(元和) 4년 기축년(809) 7월 19일에 홍서한 것으로 되어있어, 구체적인 날짜도 기록되어 있다. 소성왕의 재위 기간이 짧았음을 고려했을 때 「왕력」에서의 신묘년은 기묘년의 오기로 판단된다. 만일 애장왕이 「왕력」에서의 기록처럼 기묘년에 즉위하였다면, 애장왕 2년의 ‘당연히 있어야할 일식이 일어나지 않았다(日當食不食)’라는 기록도 일정부분 설명될 수 있다(4.4.3절 참조).

민애왕(閔哀王)과 신무왕(神武王)의 즉위년은 「연표」와 「왕력」이 일치하고 있는데, 후자에는 앞서 애장왕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홍서한 날짜까지도 기록되어 있다. 먼저 무오년(838)에 즉위한 민애왕은²⁷ 「왕력」에 의하면 이듬해인 기미년(839) “정월” 22일에, 「본기」에 의하면 “윤정월”²⁸ 19일 이후에 홍서하였다(Kim, 2013 참조). 그러나 <민애대왕석탑사리호기>(S066)에 의하면 비록 하루의 차이를 보이지만 기미년 “정월” 23일에 홍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²⁹ 「왕력」의 기록과 일치

함을 보인다. 또한 「열전」 <김양(金陽)> 편에서도 민애왕은 “정월”에 살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기미년 4월에 즉위한 신무왕은 「왕력」에 의하면 해를 넘기지 못하고 11월 23일에 홍서함에 따라 문성왕(文聖王)이 같은 해 11월에 즉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반면 「본기」에는 “가을 7월에 당나라에 보내 … 왕이 병으로 누웠는데 … 등창이 났다. 이달 23일에 이르러 왕이 죽으니 …”로 기록되어 7월 23일에 홍서한 것으로 보인다. 「열전」 <김양(金陽)> 편에서도 신무왕은 4월에 즉위하여 7월 23일 홍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신무왕의 경우는 「왕력」의 기록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삼국 왕들의 즉위년이 「연표」와 「왕력」에서 차이를 보이는 또 다른 사례는 현안왕(憲安王)이다. 「연표」에 의하면 정축년(857)에 문성왕이 홍서함에 따라 이 해에 현안왕이 즉위하였고, 신사년(861)에 홍서함에 따라 같은 해에 경문왕이 즉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반면 「왕력」에 의하면 현안왕은 무인년(858)에 즉위하였고, 이후는 「연표」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사년(861)에 홍서함에 따라, 같은 해 경문왕(응왕)이 즉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경문왕의 즉위년은 <보림사북탑지>(S069)와 <황룡사9층목탑찰주본기>에서도 확인된다³⁰. 현안왕이 무인년(858)에 즉위하였다는 「왕력」의 기록은 Table 4에서 문성왕 재위 기간이 19년이라는 사실과도 부합하며, 무엇보다 4.5절에서 논의한 <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비>(S070), <보림사철조비로자나불좌상조성기>(S065) 등의 기록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표」에서 삼국 왕들의 즉위년 기록을 HAN02, AHN09, Lee (2014) 등의 현대 연력표들과 비교해보면 광개토왕의 즉위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표」와 일치한다³¹. 「연표」와 「왕력」에 의하면 광개토왕 즉위년은 임진년(392)이지만, 오늘날 모든 연력표에서는 <광개토왕릉비>의 기록을 토대로 신묘년(391)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갑진명금동광배>(S003)에는 신라 성덕왕(聖德王) 3년이 갑진년으로 기록되어 있어(歲甲□聖德王三年), 성덕왕 즉위년이 임인년(702)임을 검증해주고 있다. 반면 백제 동성왕의 경우 「연표」와 「왕력」에서는 모두 기미년(479)에 즉위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선왕인 문주왕은 11월에 홍서하였고, 이 때 동성왕은 왜국(倭國)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Kim, 2005), 479년에 즉위가 가능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Kim (2012)이 지적한 것처럼 「백제본기」에 의하면 동성왕

²⁶ 『삼국사기』에서는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자리통감(資理通鑑)으로 적고 있는데, 이는 고려 성종의 이름인 ‘治’를 피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CRC 2008). 이 경우도 治의 피휘로 보이지만, 선덕왕의 재위 기록에서는 피휘를 하지 않고 있다.

²⁷ 이는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S063)의 “開城三年(838) 愍哀大王驟登寶位 …”라는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²⁸ 기미년(839)은 윤정월이 있는 해이다.

²⁹ 己未之年太族之月下旬有三日奄奔蒼生

³⁰ <보림사북탑지>: 咸通十一年庚寅五月日時癡王即位十年.
<황룡사9층목탑찰주본기>: 今上即位十一年咸通辛卯歲

³¹ 다만 AHN09에서는 고구려 문중왕(閔中王)의 즉위년이 A.D. 43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연표」와 다른 현대 연력표에서의 A.D. 44년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Table 5. Summary of the record on the length of a lunar month from the *Samguksagi*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and the epigraph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SN*	YR	Record	KD	Source
D01	551	(亲未年) … 至十一月十五日作始 十二月廿日了積卅五日	S	S039
D02	660	(武烈王)七年 … 十月 … 三十日 …	S	SSBs
<u>D03</u>	686	垂拱二年三月卅日	S	S095
D04	706	神龍二年丙午五月卅日	S	S047
D05	766	永泰二年丙午三月卅日	S	S088
<u>D06</u>	827	(寶曆二年歲次丙午) … 丁未年二月卅日 …	S	S015

*Under line represents the record showing the discrepancy with the work of HAN02.

은 재위 23년인 신사년(501) 12월에 흥서하였지만 같은 해에 즉위한 무령왕의 원년 기록은 정월의 기사부터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알려진 무령왕 원년(501)의 기록 또는 즉위 연도는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³².

4.2. 대소월 기록

Table 5에서는 사료들에 나타난 대·소월 기록들을 요약한 것이다. 표에서 첫 번째 열은 일련번호(SN), 두 번째 열은 연도(year; YR), 세 번째 열은 관련 기록(record), 네 번째 열은 기록의 왕조(KD)로 S, G, B는 각각 신라, 고구려, 백제를 의미한다. 마지막 열에서는 출처(source)를 제시하였으며, 그 의미는 Table 3과 같다. 또한 Table 5를 포함하여 Table 6과 7에서 일련번호에 밑줄 친 것은 HAN02의 연력표와 차이를 보이는 기록을 의미한다.

<명활산성작성비>에는 D01처럼 “11월 15일에 만들기 시작하여 12월 20일에 끝마치니 (공사 기간이) 모두 합하여 35일이다”라는 기록이 있어, 11월은 소월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금석문에는 신미년이라는 세차만이 기록되어 있어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Park (1988)은 당시 신라의 정세, 관위(官位)의 표기 방식을 토대로 551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D02처럼 태종 무열왕 7년(660)에는 “10월 30일에 사비 남령의 목책을 공격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신라본기』에서는 이 무렵부터 구체적인 날짜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일진이 아닌 10월 30일처럼 일수(日數)로 기록되어 있다. Table 5의 기록들을 HAN02와 비교했을

Table 6. Summary of the record of the leap month from the *Samguksagi*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and the epigraph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SN*	YR	Record	KD	Source
L01	325	太寧四年太歲□□ 閏月六	G	S103
<u>L02</u>	488	(長壽王)七十六年 … 秋閏八月 …	G	SSBg
L03	510	(文咨明王)十九年 夏閏六月 …	G	SSBg
L04	643	(寶藏王)二年 … 閏六月 …	G	SSBg
L05	673	(咸亨)四年癸酉歲 夏閏五月 …	G	SSBg
L06	689	(神文王)九年 … 閏九月二十六日 …	S	SSBs
L07	714	(聖德王)十三年 … 閏二月 …	S	SSBs
L08	744	(景德王)三年 閏二月 …	S	SSBs
L09	782	(宣德王)三年 春閏正月	S	SSBs
L10	839	(閔哀王)二年 春閏正月 …, 開成己未 閏正月	S	SSBs, SSYs
L11	855	大中九年歲在乙亥 夏首閏月日	S	S056

*Under line represents the record showing the discrepancy with the work of HAN02.

때, D03과 D06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라의 고승 원효(元曉)대사 추모비인 <고선사서당화상비>(S095)에는 D03처럼 “(대사가) 수공 2년(686) 3월 30일에 혈사(穴寺)에서 생을 마치니 나이 70세였다”라고, 안양 중초사지에 있는 <중초사지당간지무명>(S015)에는 D06처럼 “보력 2년 병오년(826) 8월 6일에 돌을 골라 정미년(827) 2월 30일에 완성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4.3. 윤달 기록

Table 6은 사료에 나타난 윤달 기록들을 요약한 것으로, 각 열의 의미는 Table 5와 같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사료에서 총 11개의 윤달 기록을 발견하였다. 통상 3년에 1번 있는 윤달이 삼국시대 천년의 기간 동안에 『삼국사기』에 단 9회의 기록밖에 없으며, 이는 우연히 윤달에는 특별히 기록할 만한 사건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Table 6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이른 시기의 윤달 기록은 L01의 태령 4년(325)이며, 가장 늦은 시기는 L11의

³² 『삼국사기』에는 무령왕을 선왕인 동성왕의 둘째 아들로 기록하고 있지만, Lee (1984a)에 의하면 동성왕의 이복형이다.

Table 7. Summary of the records on the *Iljin* (Cyclic Day) from the *Samguksagi*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and the epigraph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SN*	YR	Record	KD	Source
C01	137	(蓋婁王)十年 秋八月庚子癸惑犯 ...	B	SSBb
C02	182	(故國川王)四年 春三月甲寅夜赤氣 ...	G	SSBg
C03	186	(故國川王)八年 夏四月乙卯癸惑 ...	G	SSBg
C04	249	(古爾王)十六年 春正月甲午太白 ...	B	SSBb
C05	336	(古爾王)十六年 春正月甲午太白 ...	B	SSBb
C06	415	(腆支王)十一年 夏五月甲申彗星見	B	SSBb
C07	419	(腆支王)十五年 春正月戊戌星孛 ...	B	SSBb
C08	532	(聖王)十年 秋七月甲辰 星隕如雨	B	SSBb
C09	534	(聖王)十二年 夏四月丁卯癸惑犯 ...	B	SSBb
C10	549	(聖王)二十七年 春正月庚申白虹貫 ...	B	SSBb
C11	594	(威德王)四十一年 冬十一月癸未 星孛 ...	B	SSBb
C12	612	(嬰陽王)二十三年 春正月壬午 帝下詔 ... 夏六月己未 帝幸 ... 秋七月 ... 癸卯 ...	G	SSBg
C13	325	太寧四年太歲□□ 閏月六日己巳	G	S103
C14	357	永和十三年 十月戊子朔廿六日癸丑	G	S029
C15	408	泰和四年五月十六日丙午	B	S024
C16	408	永樂十八年太歲在戊申 十二月辛酉朔廿五日乙酉	G	S105
C17	409	太歲在己酉二月二日辛酉	G	S105
C18	414	甲寅年九月廿九日乙酉	G	S104
C19	449	十二月廿三[日]甲寅	G	S028
C20	489	太和十三年歲在己巳 九月壬寅朔十九日庚申	G	S037
C21	523	癸卯年 五月丙戌朔七日壬辰	B	S045
C22	525	乙巳年 八月癸酉朔十二日甲申	B	S045
C23	529	己酉年 二月癸未朔十二日甲午	B	S106
C24	568	八月廿一日癸未	S	S032
C25	568	十月二日癸亥	S	S035
C26	606	□和三年歲次丙寅 二月廿六日□戌朔	G	S011
C27	660	顯慶五年歲在庚申 八月己巳朔十五日癸未	B	S042
C28	670	(文武王)十年 秋八月一日辛丑 ...	G	SSBg

C29	679	調露元年 十二月廿六日壬申	G	S077
C30	682	永淳元年歲次壬午 十二月庚寅朔廿四日癸酉	G	S026
C31	701	大足元年歲次辛丑 二月甲辰朔十七日庚申	G	S078
C32	706	神龍二年歲次景午 八月壬寅朔十三日	B	S021
C33	707	景龍元年歲在鶉首 十月乙丑朔十八日壬午	B	S049
C34	733	開元廿一年歲次癸酉 十月甲午朔十六日己酉	G	S091
C35	778	(大曆)十三年 十一月廿四日丙寅	G	S089
C36	813	元和八年歲次癸巳 九月庚戌朔九日戊午	S	S087
C37	826	寶曆二年歲次丙午 八月朔六辛丑日	S	S015
C38	884	中和四年歲次甲辰季秋 九月戊午朔旬有九日丙子	S	S070
C39	-54	(赫居世居西干)四年 夏四月辛丑朔日有食地	S	SSBs
C40	-34	(赫居世居西干)二十四年 夏六月壬申晦日有食地	S	SSBs
C41	-28	(赫居世居西干)三十年 夏四月己亥晦日有食地	S	SSBs
C42	-26	(赫居世居西干)三十二年 秋八月乙卯晦日有食地	S	SSBs
C43	-15	(赫居世居西干)四十三年 春二月乙酉晦日有食地	S	SSBs
C44	-13	(溫祚王)六年 秋七月辛未晦日有食地	B	SSBb
C45	-2	(赫居世居西干)五十六年 春正月辛丑朔日有食地	S	SSBs
C46	2	(赫居世居西干)五十九年 秋九月戊申晦日有食地	S	SSBs
C47	6	(南解次次雄)三年 冬十月丙辰朔日有食地	S	SSBs
C48	16	(南解次次雄)十三年 秋七月戊子晦日有食地	S	SSBs
C49	73	(多婁王)四十七年 夏五月戊午晦日有食地	B	SSBb
C50	87	(己婁王)十一年 秋八月乙未晦日有食地	B	SSBb
C51	92	(己婁王)十六年 夏六月戊戌朔日有食地	B	SSBb
C52	124	(祇摩尼師今)十三年 秋九月庚申晦日有食地、 (太祖大王)七十二年 秋九月庚申晦日有食地	S, G	SSBs, SSBg
C53	127	(祇摩尼師今)十六年 秋七月甲戌朔日有食地	S	SSBs

C54	141	(逸聖尼師今)八年 秋九月辛亥晦日有食地	S	SSBs
C55	149	(次大王)四年 夏四月丁卯晦日有食地	G	SSBg
<u>C56</u>	155	(蓋婁王)二十八年 春正月丙申晦日有食地	B	SSBb
C57	158	(次大王)十三年 夏五月甲戌晦日有食地	G	SSBg
<u>C58</u>	166	(阿達羅尼師今)十三年 春正月辛亥朔日有食地	S	SSBs
C59	170	(肖古王)五年 春三月丙寅晦日有食地	S	SSBb
C60	178	(新大王)十四年 冬十月丙子晦日有食地	G	SSBg
<u>C61</u>	186	(伐休尼師今)三年 夏五月壬申晦日有食地, (故國川王)八年 … 五月壬辰晦日有食地	S, G	SSBs, SSBg
C62	189	(肖古王)二十四年 夏四月丙午朔日有食地	B	SSBb
C63	193	(伐休尼師今)十年 春正月甲寅朔日有食地	S	SSBs
C64	194	(伐休尼師今)十一年 夏六月乙巳晦日有食地	S	SSBs
C65	200	(奈解尼師今)五年 九月庚午朔日有食地	S	SSBs
<u>C66</u>	201	(奈解尼師今)六年 三月丁卯朔日有食地	S	SSBs
C67	212	(肖古王)四十七年 夏六月庚寅晦日有食地	B	SSBb
C68	219	(山上王)二十三年 春二月壬子晦日有食地	G	SSBg
C69	221	(仇首王)八年 六月戊辰晦日有食地	B	SSBb
C70	222	(仇首王)九年 十一月庚申晦日有食地	B	SSBb
C71	273	(西川王)四年 秋七月丁酉朔日有食地	G	SSBg
<u>C72</u>	308	(比流王)五年 春正月丙子朔日有食地	B	SSBb
C73	335	(比流王)三十二年 冬十月乙未朔日有食地	B	SSBb
C74	368	(近肖古王)二十三年 春三月丁巳朔日有食之	B	SSBb
C75	392	(辰斯王)八年 夏五月丁卯朔日有食之	B	SSBb
C76	400	(阿莘王)九年 夏六月庚辰朔日有食之	B	SSBb
C77	417	(腆支王)十三年 春正月甲戌朔日有食之	B	SSBb
C78	419	(腆支王)十五年 冬十一月丁亥朔 日有食之	B	SSBb

C79	440	(毗有王)十四年 夏四月戊午朔日有食之	B	SSBb
C80	468	(蓋鹵王)十四年 冬十月癸酉朔日有食之	B	SSBb
C81	478	(三斤王)二年 春三月己酉朔日有食之	B	SSBb
<u>C82</u>	495	(東城王)十七年 夏五月甲戌朔日有食之	B	SSBb
C83	516	(武寧王)十六年 春三月戊辰朔日有食之	B	SSBb
C84	547	(聖王)二十五年 春正月己亥朔日有食之	B	SSBb
<u>C85</u>	559	(威德王)六年 夏五月丙辰朔日有食之	B	SSBb
C86	572	(威德王)十九年 秋九月庚子朔日有食之	B	SSBb
C87	592	(威德王)三十九年 秋七月壬申晦日有食之	B	SSBb
C88	787	(元聖王)三年 … 八月辛巳朔日有食之	S	SSBs
C89	789	(元聖王)五年 春正月甲辰朔日有食之	S	SSBs
C90	792	(元聖王)八年 冬十一月壬子朔日有食之	S	SSBs
C91	801	(哀莊王)二年 夏五月壬戌朔日當食不食	S	SSBs
C92	808	(哀莊王)九年 秋七月辛巳朔日有食之	S	SSBs
C93	815	(憲德王)七年 秋八月己亥朔日有食之	S	SSBs
C94	818	(憲德王)十年 夏六月癸丑朔日有食之	S	SSBs
C95	836	(興德王)十一年 春正月辛丑朔日有食之	S	SSBs
C96	844	(文聖王)六年 春二月甲寅朔日有食之	S	SSBs
C97	888	(眞聖王)二年 春三月戊戌朔日有食之	S	SSBs
C98	911	(孝恭王)十五年 春正月丙戌朔日有食之	S	SSBs
CI	114	(太祖大王)六十二年 春三月日有食之	G	SSBg
CII	116	(太祖大王)六十四年 春三月日有食之	G	SSBg
CIII	165	(次大王)二十年 春正月晦日有食之	G	SSBg
CIV	256	(沾解尼師今)十年 冬十月晦日有食之	S	SSBs
CV	554	(陽原王)十年 冬十二月晦日有食之	G	SSBg

*Under line represents the record showing the discrepancy with the work of HAN02.

대중 9년(855)이다. 또한 신라의 경우 689년에 처음으로 윤달 기록이 보이며,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Kim (2007)이 지적한 대로 백제의 기록에는 윤달이 없다는 것이다. <태령4년명와당>에는 L01처럼 월명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325년에는 8월에 윤달이 있었고, <창립사 무구정탐지>(S056)에서 L11처럼 하수(夏首)는 4월을 의미한다. Table 6의 기록을 HAN02와 비교해보면 L02의 장수왕 76년(488)의 기록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치한다. 「고구려본기」 장수왕 76년 기사에는 “윤8월에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Kim(2012)의 주장처럼 이 무렵 고구려의 역일은 당시 중국 왕조와 달랐거나 북위의 윤9월 또는 남제의 윤10월의 오기로 추정된다. 만일 장수왕 76년의 기록이 옳기라면 이 기록이 “가을” 윤8월이라고 하였고, 당시 고구려는 북위와 밀접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시기에 금석문의 기록에서 북위의 연호가 나타난다는 점 등으로 보아 윤9월의 오기로 추정된다.

4.4. 일진 기록

Table 7은 사료의 일진 기록들을 요약한 것으로, 각 열의 의미는 Table 5와 같다. 일진 기록들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본기」의 일식 기록이며,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수는 없이 일진만 있는 기록(Case I), 일식 기록을 제외하고 일수와 일진이 있는 기록(Case II), 그리고 일식 기록(Case III)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4.4.1. Case I: C01 ~ C12

사료에는 일수는 없이 월과 일진만이 기록된 경우가 있다. 음력 한 달의 길이는 약 30일이기에 60간지 중 특정 간지가 그달에 들어갈 확률은 반이라고 할 수 있다. 사료에는 이러한 기록이 총 14건(C12는 3건) 있으며,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삼국 중 역사가 가장 짧은 백제가 11건으로 가장 많고, 고구려는 3건이며, 반면 가장 오래 존속했던 신라에는 이러한 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이들을 HAN02의 연력표와 비교했을 때, C02의 고국천왕 4년(182)의 기록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 달에 있는 일진들이다.

4.4.2. Case II: C13 ~ C38

일식 기록을 제외하고 월명, 일수, 일진이 모두 기록된 사료들은 크게 연대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경우와 불확실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을 HAN02의 연력표와 비교했을 때 전자의 경우 C16과 C30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 고구려의 <덕흥리고분묘지명·목서명>에는 C16처럼 영락 18년(무신년, 408) 12월 초하루 일진이 신유(辛酉)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는 HAN02의 경신(庚申)과 하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XU92에 의하면 당시 동진과 북위의 일진도 경신이다. 따라서 만일 이 금석문의 기록이 옳다면 고구려에서는 당시 중국과는 다른 역일을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백제의 <부여용묘지명>(S026)에는 C30처럼 “永淳元年歲次壬午十二月庚寅朔二十四日癸酉”로 기록되어 있는데, 영순 원년은 682년이며, 이 해의 세차는 임오(壬午)이다. 그러나 12월 초하루[朔]의 일진은 기미(己未)이며, 11월의 초하루의 일진이 경인(庚寅)이다. 그러나 11월 24일의 일진은 계유(癸酉)가 아닌 계축(癸丑)이다.

반면 연대의 추정이 불확실한 금석문의 역일 기록은 모두 HAN02의 연력표와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록의 연대를 추정함에 있어 현용 연력표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로, 백제의 <칠지도명>(S024)에는 C15처럼 “泰和四年五月十六日丙午”라는 명문이 새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五月”이 아닌 “十一月”이며, 따라서 11월 16일이 세차 병오인 해를 토대로 칠지도의 제작연대를 408년으로 추정하고 있다(Hong, 2017). 또 다른 예로 고구려의 <신포시절골터금동판명>(S011)에는 C26처럼 “□和三年歲次丙寅二月廿六日□戌朔”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和”를 고구려의 연호로 비정하고, 세차가 병인이고 2월의 초하루 일진의 지(支)가 “戌”인 606년을 이 금동판의 제작 시기로 추정하고 있다(Lee 2015).

4.4.3. Case III: C39 ~ C98

「본기」에서 일식 현상을 기록하고 있는 전형적인 형태는 월명, 일자, 일진, 그리고 “일유식지³³”라는 문구이다(예, 夏四月辛丑朔 日有食之). 일수는 삭(朔) 또는 회(晦)로 기록되어 있는데, 전자는 초하룻날 즉 음력 1일, 후자는 그믐날을 의미한다. 그믐날은 29일 또는 30일이 될 수 있지만 만일 일진이 있을 경우 다음 달 초하루의 일진을 알 수 있다. 반면 일식 기록 중에는 CI처럼 일수와 일진 둘 다 없거나 CIII처럼 일진만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기록은 총 5건으로 신라의 기록이 1건이고 고구려의 기록이 4건이다. 일자와 일진이 모두 기록된 기사는 총 60건(신라와 고구려에서 동시에 관측된 일식 2건을 포함하면 62건)이다.

이들 일식 기록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일식은 태양이 달에 의해 가려지는 현상으로 합삭, 즉 음력 초하루에 일어난다. 그러나 그믐에 일어난 식의 기록(특히 삼국초기)들이 있는데, 이는 당시에 평삭법(平朔法)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반면 정삭법(定朔法)이 처음 도입된 역법으로 알려진 무인력(戊寅曆)³⁴이 사용

³³ 애장왕 2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당식부식(日當食不食)”으로 기록되어 있다.

된 619년 이후에는 모두 초하루에 일식이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둘째로 백제의 기록은 전 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고루 분포하는 반면 신라와 고구려의 경우 273년 이후로 오랜 기간 동안 기록이 없다. 고구려의 경우 일진이 없는 CV의 554년 기록을 제외하면 사실상 273년이 마지막 일식 기록이다. 셋째로 B.C. 57과 B.C. 18년에 각각 건국한 신라와 백제의 경우 건국 초기의 일식기록이 있는 반면 B.C. 37년에 건국한 고구려는 90년이 지난 후인 A.D. 124년에 첫 번째 일식 기록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들 일식 기록의 일진을 HAN02의 연력표와 비교했을 때 아래에서 논의한 7건은 불일치를 보인다.

먼저 C56의 개루왕 28년(155) 1월 기록에 의하면 2월 초하루의 일진은 정유이지만 HAN02에 의하면 갑자이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의 기록에는 “신라에서 아찬(阿飡) 길선(吉宣)이 반란을 도모하다가 우리에게 달려왔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신라본기」에 의하면 이 사건은 아달라이사금 12년(165) 10월의 기록이다. 따라서 “을미년”인 개루왕 28년은 “을사년”인 개루왕 38년의 오기로 보인다. 개루왕 38년(165) 2월 1일의 일진은 정유이며, 155년에는 백제에서 관측이 가능한 일식이 없었던 반면 165년 양력 2월 28일(음력 1월 30일)에는 관측이 가능한 일식이 있었다. 또한 「백제본기」에는 개루왕 38년의 기록은 없고, 28년 다음은 “왕이 죽었다”라는 39년(166)의 기록이 있다. 이로 인해 삼국시대 일식 연구들에서는 개루왕 28년의 일식 기록을 38년의 기록으로 간주하고 있다(예, Park & La, 1994; Lee, 2008; Stephenson, 2013). 이 경우 백제 개루왕 28년의 기사는 일진이 없는 CIII의 고구려 차대왕 20년의 기사(春正月晦 日有食之)에서와 같은 일식을 관측한 기록이 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C82의 백제 동성왕 17년(495)의 기사는 “夏五月甲戌朔”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HAN02에 의하면 이때의 일진은 기사이며, 동성왕 16년(494) 5월 1일(양력 6월 19일)의 일진이 갑술이다. Park & La (1994) 또한 그들의 삼국시대 천문현상 기록 연구에서 동성왕 17년의 일식 기록을 494년의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경우 “고구려가 치양성(雉壤城)을 에워싸므로 … 고구려 군사가 물러갔다”라는 같은 해 8월의 기사도 494년의 기록이 되어야 하지만, 이는 현재 495년으로 알려진 신라 소지마립간 17년과 고구려 문자명왕 4년에도 기록되어 있다. 4.1절에서 논한 것처럼 문자명왕 즉 위년인 신미년(491)일 경우 4년은 494년이 되지만, 소지마립간 17년의 경우는 오류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없다. 다만 소지마립간 9년(487)에는 봄 2월에 시조가 탄생한 곳인 나을(奈乙)에 신궁(神宮)을 설치하였

다는 기록이 있는데, 「잡지」 <제사> 편에는 22대 지증 마립간³⁵ 시기에 신궁을 건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C58의 신라 아달라이사금 13년(166) 일식 기록에 의하면 1월 1일의 일진이 신해이지만, HAN02에 의하면 이때는 양력으로 2월 18일이고 일진은 신묘이다. 166년 양력 2월 18일에는 신라를 포함한 한반도에서 관측이 가능한 일식이 있었다. 따라서 신해(辛亥)는 신묘(辛卯)의 오류로 보인다. 또한 C61의 신라 벌휴이사금 3년(186) 5월의 일식 기록에 의하면 6월 1일의 일진은 계유이지만, 같은 일식의 기록인 고국천왕 8년(186)의 기사에 의하면 HAN02과 일치하는 기사이다. 따라서 “임신삭(壬申朔)”이라는 신라 기록은 “임진삭(壬辰朔)”의 오류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무렵 비록 일식은 있었으나 Stephenson (2013)에 의하면 최대 식분이 0.02로 사실상 한반도에서는 관측이 불가능한 일식이었다.

C66의 신라 내해이사금 6년(201)의 경우 “三月丁卯朔”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HAN02에 의하면 3월 1일의 일진은 정유이며, 2월 1일(양력 3월 22일)의 일진이 정묘이다. 따라서 3월은 2월의 오기로 보이며, 양력 3월 22일에는 관측 가능한 일식이 있었다. 반면 C72의 백제 비류왕 5년(308)의 경우 “春正月丙子朔”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HAN02에 의하면 1월 1일의 일진은 병오이며, 2월 1일(양력 3월 9일)의 일진이 병자이다. 그러나 이 무렵에는 일식이 없었다. 아울러 C85의 백제 위덕왕 6년(559)의 경우 “夏五月丙辰朔”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HAN02에 의하면 5월 1일의 일진은 정해이며, 윤5월 1일(양력 6월 20일)의 일진이 병진이다. 그러나 이해에도 일식은 없었다.

앞서 경우와는 달리 일진이 비록 HAN02의 연력표와 일치하는 하지만, 실제로는 일식이 일어나지 않은 기록들(C40, C47, C59, C71, C81, C87, C95)도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C91의 애장왕 2년(801) 기사는 “일식이 있었다(日有食之)”로 표현된 다른 기록들과는 달리 5월 초하루 임술(壬戌)일에 “당연히 있어야 할 일식이 일어나지 않았다(日當食不食)”로 기록되어 있다. HAN02에 의하면 이때는 양력 6월 15일로 일진이 임술이며, 또한 Lee et al.(2011)에 의하면 신라에서 관측 가능한 일식이 있었다. 그러나 4.1절에서처럼 애장왕 원년이 기묘년(799)이면 비록 일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2년의 일식 기록이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애장왕 원년이 799년이면 2년은 800년이 되고, 이해 5월 초하루(양력 5월 27일) 일진은 임술(壬戌)이 아닌 무술(戊戌)이지만 일식이 없었고, 대신 한 달 후인 6월 1일(양력 6월 26일)에 신라에서 관측이 가능한 일식이 있었다(Lee et al., 2011).

³⁴ 정삭법은 유작(劉焯)의 황극력(황극력)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나, 이 역법은 시행되지 못했다(Lee, 1978).

³⁵ 「신라본기」에는 지증마립간 9년의 기록은 없다.

삼국시대 일식 기록 전반에 대한 논의로, Park & La (1994)는 이들 기록이 삼국에서의 독자적 관측 결과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그들이 언급한 대로 일부 일본이나 서구 학자들은 중국의 기록을 베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최근 Stephenson (2013)에 의해서 다시 제기된 바 있다. 삼국시대 일식 기록들이 중국의 것을 베낀 것이라는 주장들의 근거는 몇몇 기록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 문헌에 있는 기록들이며, 아울러 내용도 동일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C40처럼 일어나지 않은 일식에 대한 기록마저도 같고, 중국 문헌에 없는 일식 기록들은 그해에 일식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Stephenson (2013)의 주장처럼 『삼국사기』 일식 기록이 중국의 기록을 베낀 것이라면 김부식을 포함한 공동 편찬자들이 이를 공모하였다는 의미로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보다는 Jeon(2015; 2016a; 2016b), Jun(2020) 등의 주장처럼 『삼국사기』 편찬 과정에서 중국의 문헌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앞서 애장왕 2년의 일식 기록처럼 이 기록의 연대를 추정함에 있어 당대 중국 문헌의 일식 기록을 참고하여 비슷한 시기인 당 덕종(德宗) 22년(801)의 일식과 같은 식(食)으로 판단하여³⁶ 연도를 신사년(801)으로 동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차이를 보이는 일진은 수정한 반면 내용은 “日有食之”라는 중국의 기록과는 달리 “日當食不食”이라는 신라의 기록을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삼국사기』에는 편찬자들이 삼국 왕들의 재위 기간과 관련하여 당시 중국 문헌과 비교한 내용이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다는 점이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예로 신라 진평왕 54년의 기록에는 “고기(古記)에는 정관(貞觀) 6년 임진 정월에 홍서하였다고 하였는데 『신당서』와 『자치통감』에는 정원 5년 신묘에 신라왕 진평이 홍서하였다고 했으니 잘못이 아닐까”라는 논평이 추가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C56, CIV, C82, CV는 중국에는 없는 기록들이지만, 앞서 논의한 것처럼 C56의 155년과 C82의 495년 기록을 각각 165년과 494년의 기록으로 보면 중국에 없는 기록은 CIV와 CV이다. 이들은 모두 일진이 없는 기록들이며, 아울러 CIV의 256년과 CV의 554년 무렵 중국 문헌에는 일식 기록이 없다.

4.5. 기타 기록

Table 8은 금석문에 나타난 역일과 관련된 기타 기록들을 요약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 현종(玄宗) 천보(天寶) 3년(744)부터 지덕 2년(757) 기간 동안에는 E01과 E02에서처럼 “연(年)” 대신 “재(載)”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울주천전리각석-기타명>(S004)에는 E03처럼 병술재(丙戌

Table 8. Summary of other records related to the calendar day from the epigraphy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SN	Record	Source
E01	天寶四載	S090
E02	天寶十載□十一月	S058
E03	丙戌載六月十六日. 丙申載五月十一日	S004
E04	元和九載秋八月	S022
E05	癸卯年五月丙戌朔七日壬辰 ... 乙巳年八月癸酉朔十二日甲申	S045
E06	丙午年十二月百濟國王太妃壽終 ... 己酉年二月癸未朔二十日甲午	S106
E07	武德八年生 ... 長安二年壬寅示滅年七十八	S006
E08	長慶甲辰歲現乎世中和壬寅曆歸乎寂 恣坐也四十三夏歸全也五十九年	S094
E09	披緇以會昌乙丑年春 ... 中和三年 ... 僧臘三十九	S102
E10	自鴈塔始成永泰二年丙午到更治今年 淳化四年癸 ... 已得二百二十八年	S088
E11	至二十三法興大王以蕭梁天監十三年 甲午 ... 距未離王癸未之歲二百五十二年	S019
E12	法興王即位大同十五乙未年來達今於 唐永泰二年丙午二百五十三	S008
E13	會昌四季歲在甲子季秋之月兩旬九日 遷化廉居和尚塔去釋迦牟尼佛入涅槃 一千八百四季矣	S009
E14	釋迦佛 ... 一千八百六載 ... 咸通六年正月日 ...	S052
E15	釋迦如來入滅後一千八百八年耳此時 情王即位第三年也	S065

載), 병신재(丙申載)와 같이 세차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들은 각각 746년과 756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E04와 E14에서처럼 800년대 무렵의 금석문들에서도 사용한 사례들이 있어 “재”라는 표현으로부터 연대를 추정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금석문의 내용 등으로부터 연도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백제 무령왕과 왕비 묘지석의 세차 기록이다. 아울러 이들 묘지석의 E05와 E06과 같은 역일 기록은 그동안 백제가 중국에서 445년부터 509년까지 사용된 원가력(元嘉曆)을 채용하였다는 중국 문헌 기록을 검증하는데 활용되어 왔다(Lee 1984b 참조). 그러나 최근 Kim(2013)이 주장한 것처럼 이들은 대명력(大明曆)을 사용한 소량(蕭梁)의 역일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당시 백제가 원가력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³⁶ 중국의 기록에는 800년의 일식 기록은 없고, 이 무렵 전후로 해서는 796년과 808년의 기록이 있다(BAO, 1988).

다음으로 금석문에서는 기년(紀年)과 관련된 기록도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금석문들인 <의상비>(S006)에는 E07처럼 대사가 무덕(武德) 8년(625)에 태어나 장안(長安) 2년(702)에 돌아가시니 나이가 78세라는 기록이,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S094)에는 E08처럼 대사가 장경(長慶) 갑진년(824)에 태어나 중화 임인년(882)에 돌아가시니 나이가 59세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서양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표현에서 기점(起點)을 포함하는, 즉 태어난 해를 1세로 하는 현행 방식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러한 나이 기년 방식의 전통은 적어도 통일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Lee et al. 2016 참조).

이뿐만 아니라 특정 시점으로부터 경과한 햇수의 표현에서도 기점을 포함하여 기산하고 있는데, <월광사원량선사대보선광탑비>(S102)에는, E09처럼 원량(圓朗) 선사(禪師)는 회창(會昌) 을축년(845)에 출가하여 중화(中和) 3년(883)에 입적하니 승려 생활이 39년이었던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영태2년명탑지>(S088)에서도 E10에서처럼 탑을 수리한 시기는 탑이 제작된 영태 2년 병오년(766)으로부터 228년이 되는 순화 4년인 계사년(993)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아도비>에도 E11처럼 미추이사금 계미년(263)부터 제23대 법흥왕 원년(514)까지를 252년으로 표현하고 있다. 반면 <이차돈순교비>(S008)에는 E12처럼 법흥왕 즉위년이 대동(大同) 15년 을미년이며, 이로부터 당 영태 2년(766)까지가 25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대동은 535년부터 545년까지 사용된 연호이며 또한 법흥왕 즉위년은 을미년이 아닌 갑오년이기 때문에 기록에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다만 현재 알려진 법흥왕 즉위년인 “갑오년”(514)부터 766년까지 기산하면 금석문의 기록에서처럼 253년이 된다.

마지막으로 금석문에는 연도를 연호를 이용한 기년이나 세차가 아닌 불멸기년(佛滅紀年)으로 기록된 사례도 있다. <홍법사염거화상탑지>(S009)에는 E13처럼 석가모니불 열반으로부터 갑자년인 회창 4년(844)까지는 1804년으로 기록되어 있어 앞서 기점을 포함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석가모니가 열반한 해(이하 불멸기점)는 B.C. 960년이 된다. 하지만 <도피안사철조비로자나불좌상조상기>(S052)에서는 E14처럼 석가열반으로부터 함통 6년(865)까지는 1806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 경우 불멸기점은 B.C. 941년이 된다. 반면 <보림사철조비로자나불좌상조상기>(S065)에는 E15처럼 석가열반으로부터 정왕(현안왕) 즉위 3년까지를 1808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현재 알려진 현안왕 즉위년(857)을 적용하면 오늘날 북방설로 알려진 B.C. 949년의 불멸기점과 일치한다. 이처럼 금석문의 기록들에서 불멸기점이 불일치를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Chong (1995)은 “此時”로 표현된 <보림사철조비로자나불좌상조상기>의 기록과는 달리

<홍법사염거화상탑지>와 <도피안사철조비로자나불좌상조상기>에서 연호기년과 불멸기년으로 표현된 연도들은 서로 다른 사건들의 시기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보림사철조비로자나불좌상조상기>에서는 입멸 “후(後)” 라고 기록되어 있어 앞서 기점을 포함하는 기년 방식과는 달리, 즉 불멸기점 이후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초복과 말복의 일자는 각각 하지 ‘후’ 세 번째와 입추 ‘후’ 첫 번째 경일³⁷이다(Park et al., 2017). 문제는 하지만 입추가 경일일 경우 이날을 포함해서 또는 이후부터 기산할 것인가로, 오늘날에는 이날을 포함하여 삼복 일자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적어도 1712년 이전까지는 초복 일자를 정함에 있어 초복이 경일인 경우, 이날 이후부터(즉 기점을 포함하지 않고) 세 번째 경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Mihn et al., 2014). 따라서 <보림사철조비로자나불좌상조상기>의 기록을 이러한 방식으로 기산 하면, 불상을 조성한 때인 정왕(현안왕) 3년은 860년이 된다. 이는 4.1절에서 현안왕 원년이 무인년(858)이라는 『삼국유사』 「왕력」의 기록뿐만 아니라 불상의 제작시기가 언급되어 있는 또 다른 금석문인 <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비>의 당 선제 14년(860)이라는 기록과도 일치하게 된다. 이처럼 “불멸 1809년”이 아닌 “불멸 후 1808년”으로 표현한 것은 조상기를 쓴 사람의 서풍(書風)으로 추정된다. 그 근거로는 현재 <보림사철조비로자나불좌상조상기>를 쓴 사람은 <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비>를 쓴 김언경(金彦卿)과 동일 인물로 추정하고 있으며(İKAS, 1995), 후자의 금석문에서는 “무인년”을 “용이 석목의 나무에 머문 해”(龍集于析木之津)로, 현안왕 “2년”을 현안대왕 “즉위 이듬해”(憲安大王即位後年)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5. 요약

현재 통용되는 삼국시대 연력표를 검증하기 위해 『삼국사기』와 당대 금석문에 기록된 연호와 역일 관련 기록을 분석하였다. 삼국시대 금석문의 기록은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 연구에 분석한 내용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호 기록에 대한 연구로 먼저 「연표」에 나타난 삼국시대 기간 동안의 중국 연호와 신라에서의 연호 사용에 대한 기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에서 여러 왕조가 공존했던 삼국시대(220 ~ 280)에는 조위와 서진의, 남북조시대(386 ~ 589)에는 동진, 유송, 남제, 소량, 진의 연호가 수록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조위는 현행 삼국시대 연력표와 일치를 보이는

37 일진이 경(庚)자로 시작하는 날.

축한의 역일과는 달랐다는 점이다. 한편 신라에서는 법흥왕 23년(536)에 건원이라는 연호를 시작으로 개국, 대창, 흥제, 건복, 인평, 태화 등을 사용하였으며, 통상 중국에서는 즉위할 때 개원하는 것과 달리 이들은 모두 재임기간 중에 개원되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연표」에서는 650년부터 중국의 정삭(正朔)을, 「본기」에서는 영희 연호(年號)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사료에 기록된 연호들은 고구려를 제외하고는 「연표」에 수록된 시대별 중국 왕조들의 연호와 일치함을 발견하였다. 고구려의 경우 중국 남북조시대 기간 중인 유송 시기에는 북위의 연호가, 소량시기에는 동위의 연호가 사용된 사례가 있어 당시 고구려는 신라와는 다른 역일을 사용했을 개연성이 있다.

역일 기록에 대한 연구로 먼저 「연표」와 사료에 기록된 삼국 왕들의 즉위년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로부터 신라 미추이사금, 법흥왕, 선덕왕(善德王), 성덕왕, 민애왕, 경문왕의 즉위년을 검증하였다. 반면 신라 애장왕과 현안왕, 고구려 장수왕과 문자명왕, 백제 동성왕, 무령왕, 위덕왕의 즉위년은 오류일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애장왕 원년이 「연표」에서처럼 경진년(800)이 아닌 기묘년(799)이면, “일당식부식(日當食不食)”이라는 2년의 기록도 설명될 수 있다. 다음으로 사료에 기록된 역일 기록을 대·소월, 윤달, 일진, 기타의 네 그룹으로 구분하여 현행 연력표와 비교하였다. 총 6건의 대·소월 기록 중에는 2건(660년 10월과 827년 2월)이, 11건의 윤달 기록 중에는 1건(장수왕 76년 윤8월)이 차이를 보였다. 일진 기록은 총 98건으로, 이들은 다시 세 그룹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일진만 있는 기록은 12건이며, 이 중 1건(182년 2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달에 있는 일진이었다. 일자와 일진이 있는 기록은 26건으로 고구려 408년 12월 초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치함을 보였다. 총 60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식 기록은 7건이 불일치를 보였다. 또한 일어나지 않은 일식의 기록을 포함하여 모두 중국의 기록과도 같다. 이는 『삼국사기』 편찬에서 삼국 기록의 연도를 중국 문헌 자료를 참조하여 동정하는 과정에서 오류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기타 그룹의 기록들로부터 특정 시점으로부터 경과한 햇수는 오늘날 연령 표현에서처럼 기점을 포함하여 기산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다만 기년에서 ‘후’라는 표현은 기점을 제외하고 기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현행 삼국시대 연력표를 검증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CKNOWLEDGEMENT

이기원과 정용주는 2019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2019R111A3A01055211).

REFERENCES

- Ahn, Y. S., Mihn, B. -H., & Kim, S. -H., 2014, Collection of the Astronomical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Ltd. (Paju)
- Ahn, Y. S., Han, B. S., Sim K. J., & Song, D. J., 2009b, Chronological Tables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Ltd. (Paju)
- Ahn, Y. S., Lee, Y. B., Lee, Y. S., & Han, B. S., 2009a, Chronological Table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Ltd. (Paju) (AHN09)
- Ahn, Y. S., Sim, K. J., Song, D. J., Han, B. S., & Yang, H. -J., 2009c, Chronological Tables of the Goryeo Dynasty Period,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Ltd. (Paju)
- Beijing Astronomical Observatory (BAO), 1988, Complete Catalogue of Ancient Astronomical Records of China (中國古代天象记录总集), Jiangsu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江蘇科學技術出版社) (Nanjing)
- Chang, D. -I., 2012, The Calendar of the Early Goryeo, The Journal of Korean Medieval History, 33, 165
- Chong, S. J., 1995, The Formative Era of Work of Art in the Ninth Century – Examined Through the Death of Budha, The Historical Journal, 28, 617
- Chun, W. -J., 2016, The rubbing of the inscription on the of Gwanggaeto the Great (廣開土王陵碑文) ‘shinmyo year Jo (辛卯年條)’ The consideration of study – Focusing on the existing study and the Seokmoon (釋文) -, The East Asian Ancient Studies, 43, 57-88
- Classics Research Center (CRC), 2008, New Edition of the Samguksagi: 1, 2, Shinseowon (신서원) (Seoul)
- Eom, G. -P., 2016, A Study on the Letter and Style of Pyeonum Priest Stūpa in the Silsangsa temple, Jeonbuk Sahak (전북사학), 49, 27
- Han, B. S., 2002, Arrangement of Chronological Tables on Korea: Volume I, Yeungnam University Press (Gyeongsan) (HAN02)
- Hong, S. H., 2017, Study on the Production Age and Background of the seven-branched Sword, Dongyeon (동연), 1, 53
- Institute of Korean Ancient Society (IKAS), 1995, Annotated Translation of Korean Ancient Epigraph: Volume I, II, III, Oh-Jeong Press Inc (五政印刷株式會

- 社), (Seoul)
- Jeon, D., 2016a, A Study on the Basic Original Text of Samguksagi “Goguryeobongi” and Its Completion – Focused on the Records before the Reign of King Gwanggaeto –, The Oriental Studies, 64, 59
- Jeon, D. J., 2009, New Light Shed on the Battle of Gwansanseong Fortress,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34, 31
- Jeon, D. -J., 2015, A Study on the Basic Original Text of the Middle and Late Period Records of the Samguksagi Sillabongi and its Completion, The Daegu Historical Review, 120, 133-186
- Jeon, D. -J., 2016b, A Study on the Basic Original Text of the Samguksagi Beakjebongi – focused on the citation records from Chinese history books and domestic materials –, The Historical Journal, 53, 49
- Jun, Y. H., 2020, Reexamination of the Astronomical Records in Samguk sagi that Depended on Chinese Sources, The Korean History of Science Society, 42, 29
- Jung, W. Y., 1998, The Koguryo Chronology Inscribed on a Metal and Stone Monument, The Journal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5, 48
- Ki, K. -R., 2016, Types and Deciphering of the Goguryeo Rolling Cloud Pattern Roof-end Title with Inscriptions excavated from the Jian Area, The KoguryoBalhae Yonku (고구려발해연구), 56, 39
- Kim, I., 2007, Examination on the Problems of the Baekje Calendar System and Sexagenary Cycle Day, in Encyclopedia of the Cultural History of the Baekje: Volume 11, edited by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Gongju), pp.349-385
- Kim, I., 2012, The Koguryo Calendar System and the Sexagenary Cycle Calendar Records in Fifth-Century Epigraphy, Dongbuga Yeoksa Nonchong (동북아역사논총), 36, 53-94
- Kim, I., 2013, Silla Astronomy and Almanac on the Silla-bongi and Epigraphs,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42, 155
- Kim, K. S., 2005, The Enthronement of King Dongseong and Changes in the Political Situation of Baekjae, Hanguk Sanggosa Hakbo (한국상고사학보), 50, 5
- Kim, Y. -K. & Cho, B. -H., 2016, Review on the Studies of Cheon Namsaeng’s Epitaph, Sogang Journal of Early Korean History, 22, 7
- King Sejong Memorial Association (KSMA), 1996, Korean Translation of the Samguksajeolyo, Shinheung Press Co. (Seoul)
- Kwaak, S. -H., Kwon, D., Kwen, E. -J., Park, C., Byon, I., Shin, J.-W., Yang, E. -G., & Lee, S. H., 2015, Ancient Korean Epigraphy in China,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ress (Seongnam)
- Lee, D. H., 1984a, A Study on the Genealogy of Bagje Kings from the Late Hanseong (漢城) Era to Wungjin (熊津), The Journal of Korean History, 45, 1
- Lee, E. S., 1978, Korean Astronomical Almanac: Volume II, Jeonpagwahaksa (전파과학사) (Seoul), pp.168-185
- Lee, E. S., 1984b, The Stone Biography of King Muryong of Paekche and Yuan-Jia-Li-Fa, The Dong Bang Hak Chi (동방학지), 43, 39
- Lee, E. S., 1985, Principle Analysis of the Calendar, Mineumsa (민음사) (Seoul)
- Lee, H. J., 2014, Chronological Table of the Orient, Tamgudang (탐구당) (Seoul)
- Lee, K., 2008, A Study of Solar Eclipse Records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in Korea, The Journal of the Korean Earth Science Society, 29, 408
- Lee, K. -W., Ahn, Y. S., & Mihn, B. -H., 2012, Verification of the Calendar Days of the Joseon Dynasty, JKAS, 45, 85
- Lee, K. -W., Ahn, Y. S., & Mihn, B.-H., 2016, Analysis of Reign Style and Calendar Day Presented in the Epigraphs of the Goryeo Dynasty, PKAS, 31, 1
- Lee, S. -H., 2015, A Study on the Inscription on the Gilt Bronze Plate Excavated from Shinpo-si Temple Site, Wooden Documents and Inscriptions Studies, 14, 227
- Lee, Y. B., Ahn, Y. S., Yim, I. S., & Kim, D. B., 2011, The Solar Eclipse Maps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Ltd. (Paju), pp.674-675
- Mihn, B. -H., Lee, K. -W., Ahn, Y. S., Ahn, S.-H., & Lee, Y. S., 2014, Analysis of Sambok in Korea, PKAS, 29, 1
- Park, B. -R., 1988, On the Stele of Myonghwalsan-Sansong Fortress, Misuljaryo (미술자료), 41, 57
- Park, C. & La, D., 1994, Confirmation and Historical Consequences of Astronomical Records in Samguksagi, The Korean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16, 167
- Park, H. -E. & Ahn, Y. S., 2019, Korean Astronomical Almanac for the Year 2020, SMBook (Seoul)
- Park, H. -E., Mihn, B. -H., & Ahn, Y. -S., 2017, Operation of A Lunisolar Calendar in Korea and Its Calculation Method, PKAS, 32, 407
- Park, K., 2013, Calendar Publication and Local Science in Joseon Korea, The Korean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35, 69

Park, S -R., 1978, Development of Calendars and Reign Titles in Early Koryo Dynasty, *Journal of Korean Studies*, 4, 135

Stephenson, F. R., 2013, Astronomical Records in the Samguk Sagi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Earliest Times to A.D. 668, *Korean Studies*, 37, 171

Song, Y. J., 1966, Some era-names of the Sam-Kooks (Three Kingdoms) period in the inscription of stone monuments, *Historical Science (역사과학)*, 4, 12

Xu, X. Q., 1992, *Xinbian zhongguo sanqiannian liri jiansuobiao (新编中国三千年历日检索表)*, People's Education Press (人民教育出版社) (Beijing) (XU92)

Xue, Z. & Yi, O., 1961, A Sino-Western Calendar for Two Thousand Years 1-2000 A.D., Shang-Wu Yin-Shu-Guan (商務印書館) (Beijing)

Yang, H. -J., Ahn, Y. -S., & Lee, K. -W., 2008, Analysis of Astronomical Almanac Data for National Standard Reference Data, *PKAS*, 23, 53

부 록

A. List of the epigraphs used in this study.

SN	Title	KD
S001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	S
S002	百濟昌王銘石造舍利龕	B
S003	甲辰銘金銅光背	S
S004	蔚州川前里刻石-其他銘	S
S005	淸州雲泉洞寺蹟碑	S
S006	義相碑	S
S007	彌勒寺址出土土器銘	B
S008	異次頓殉教碑	S
S009	興法寺廉巨和尚塔誌	S
S010	魏毋丘儉紀功碑	G
S011	新浦市절골터金銅版銘	G
S012	高玄墓誌銘	G
S013	葛項寺石塔記	S
S014	蔚州川前里刻石-上元二年銘	S
S015	中初寺址幢竿支柱銘	S
S016	蔚州川前里刻石-開成三年銘	S
S017	蔚州川前里刻石-上元四年銘	S
S018	雁鴨池出土儀鳳四年銘瓦	S
S019	我道碑	S
S020	雁鴨池出土調露二年銘寶相華文磚	S
S021	黑齒俊墓誌銘	B
S022	大安寺寂忍禪師照輪淸淨塔碑	S
S023	黑齒常之墓誌銘	B
S024	七支刀銘	B
S025	金仁問墓碑	S
S026	扶餘隆墓誌銘	B

S027	寧越興寧寺澄曉大師塔碑	S
S028	中原高句麗碑	G
S029	安岳三號墳墨書銘	G
S030	崇福寺碑	S
S031	聖住寺郎慧和尚白月葆光塔碑	S
S032	黃草嶺新羅眞興王巡守碑	S
S033	甘山寺石造彌勒菩薩立像造像記	S
S034	雲門寺鵲鴨殿出土舍利石塔壺銘	S
S035	磨雲嶺新羅眞興王巡守碑	S
S036	慶州拜里潤乙谷磨崖佛坐像銘	S
S037	太和十三年銘石佛像	G
S038	新羅文武大王陵碑	S
S039	明活山城作城碑	S
S040	禪林院址弘覺禪師碑	S
S041	瑞鳳塚出土銀合杆	G
S042	唐平濟碑	B
S043	唐劉仁願紀功碑	B
S044	甘山寺石造阿彌陀佛立像造像記	S
S045	武寧王陵誌石(王)	B
S046	皇龍寺九層木塔利柱本記	S
S047	皇福寺石塔金銅舍利函記	S
S048	眞坡里四號墳墨書銘	G
S049	珣將軍功德碑	B
S050	龍鳳寺磨崖佛造像記	S
S051	永泰二年銘蠟石製壺	S
S052	到彼岸寺鐵造毘盧蔗那佛坐像記	S
S053	鎮川太和四年銘磨崖佛立像	S
S054	鶯棲寺石塔舍利函記	S
S055	禪房寺塔誌	S
S056	昌林寺無垢淨塔誌	S
S057	實相寺片雲和尚浮圖	S
S058	雁鴨池出土木簡	S
S059	開仙寺石燈記	S
S060	興德王陵碑片	S
S061	昌寧塔金堂治成文記碑	S
S062	百城山寺前臺吉祥塔中納法際記	S
S063	雙溪寺眞鑑禪師大空塔碑	S
S064	防禦山磨崖佛造像記	S
S065	寶林寺鐵造毘盧舍那佛坐像造像記	S
S066	敏哀大王石塔舍利壺記	S
S067	建興五年銘金銅佛	G
S068	寶林寺南塔誌	S
S069	寶林寺北塔誌	S
S070	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	S
S071	五臺山寺吉祥塔誌	S
S072	金銅辛卯銘三尊佛	G
S073	海印寺護國三寶戰亡繡素玉字	S
S074	蓮池寺鐘	S
S075	永康七年銘金銅光背	G
S076	海印寺妙吉祥塔誌	S
S077	泉男生墓誌銘	G
S078	泉獻誠墓誌銘	G
S079	禪林院鐘	S

S080	聖德大王神鍾	S
S081	竅興寺鐘	S
S082	永川靑提碑(貞元銘)	S
S083	延嘉七年銘金銅如來立像	G
S084	仲和三年銘金銅舍利器記	S
S085	高慈墓誌銘	G
S086	上院寺鐘	S
S087	斷俗寺神行禪師碑	S
S088	永泰二年銘塔誌	S
S089	高震墓誌銘	G
S090	無盡寺鐘	S
S091	泉慈墓誌銘	G
S092	泉男產墓誌銘	G
S093	襄零崇刻字石城	S
S094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	S
S095	高仙寺誓幢和上碑	S
S096	法光寺石塔誌	S
S097	神龍二年銘金銅舍利方函記	S
S098	咸通銘禁口	S
S099	松山村大寺鐘	S
S100	英陽蓮塘洞石佛坐像造像記	S
S101	實相寺秀澈和尚楞伽寶月塔碑	S
S102	月光寺圓朗禪師大寶禪光塔碑)	S
S103	太寧四年銘瓦當	G
S104	廣開土王陵碑	G
S105	德興里古墳墓誌銘墨書銘	G
S106	武寧王陵妃誌石(王妃)	B
S107	靈岩貞元銘石碑	S